

碩士學位論文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1946년 ~ 1999년까지의 클레오파트라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eopatra's Make-up and
Hair-style

2 0 0 6 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允 貞

碩士學位論文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1946년 ~ 1999년까지의 클레오파트라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2 0 0 6 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允 貞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銀淑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1946년 ~ 1999년까지의 클레오파트라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2 0 0 5 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允 貞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銀淑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1946년 ~ 1999년까지의 클레오파트라 영화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Cleopatra's Make-up and Hair-style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 0 0 5 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允 貞

金允貞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국 문 초 록

고대 이집트의 미용기술은 현재의 메이크업, 피부미용, 헤어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집트의 미용기술은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시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클레오파트라는 과거뿐만 아니라 200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이 시대의 트렌드 메이크업으로 다시 선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역사상의 자료는 두상이나, 부조, 동전 등에 불과하며, 이러한 자료들조차 클레오파트라일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비교적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들은 후대의 예술가들에 의해 제작되어진 것이며, 이들 중에는 제작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 역사적 사실과 달리 다양하게 해석되어진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46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클레오파트라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하여 담아낸 여러 편의 영화들 중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영화 4편을 선정하여 역사적 자료와 제작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들을 근거로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4편의 영화는 1946년 비비안 리 주연의 작품과 1953년 소피아 로렌 주연의 작품, 196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작품, 1999년 레오노어 바렐라 주연의 작품이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인으로서 이집트의 여왕의 자리에 앉게 됨으로써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 더욱더 이집트의 종교를 중요시하였고, 절대 권력의 이시스 여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상황적으로 이집트는 과거에서부터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기까지 로마와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살펴 보면, 이집트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복식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왕권과 이시스 여신을 상징하는 우라에우스나 독수리, 소의 뿔, 태양원반 등 다양한 상징물들이 복식과 관, 그리고 장신구 등에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닮고자 했던 이시스 여신은 풍요롭게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강력한 마법을 쓸 줄 알았고, 악으로부터 아들을 구해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고, 이상적인 현모양처로써 숭배되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계를 통일된 국가로 완벽하게 통치하고자 했던 욕망을 가지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충분히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하였다. 이러한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는 1960년대에 사회에 여성의 참여가 권장되고, 현대에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강인한 여성이 선호되면서 오늘날에 또다시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4편의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은 같은 역사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 영화 작품마다 제작자의 의도나 제당시의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비비안 리 주연의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철부지의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의 도움으로 점점 강인한 통치자로 자리 잡게 되는 캐릭터를 담아내고 있으며, 소피아 로렌 주연의 클레오파트라는 요부의 이미지가 강한 캐릭터를 그려내고 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와 레오노어 바렐라 주연의 클레오파트라 두 작품 모두 서사극 형식으로 역사에 기준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는 풍요로운 이집트와 이시스 여신으로서 존재했던 강력한 권력의 클레오파트라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하고 화려한 의상과 소품을 사용하였으며, 레오노어 바렐라의 클레오파트라는 외교적이면서 교활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잔인하며, 자식에 대한 모정과 연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성격과 인간적인 모습의 클레오파트라를 좀 더 소박하게 담아내고 있다.

각기 다른 이미지의 클레오파트라를 재현하고 있는 4편의 작품 속에 클

레오파트라는 제작자나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여리게, 혹은 강하게 보이도록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제작당시의 유행하던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복식의 형태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재현된 영화 속의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클레오파트라의 고증 자료와 영화제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유행패턴을 통해서 분리해 냄으로써 좀 더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에 가까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해 낼 수 있다.

목 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 2절 연구의 범위	3
제 3절 연구의 방법	4
 제 2장 일반적 고찰	5
제 1절 클레오파트라의 인물 분석	5
1. 클레오파트라의 생애	5
2. 이집트 신화의 여신 이시스	10
3.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13
제 2절 이집트 여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17
1. 메이크업	17
2. 헤어스타일	28
3. 복식 및 장신구	34
 제 3장 영화 작품 속에서의 클레오파트라 분석	42
제 1절 1946년 작품 비비안 리 주연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42
1. 작품 개요	42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44
제 2절 1953년 작품 소피아 로렌 주연의 ‘클레오파트라의 이틀 밤’	52

1. 작품 개요	52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53
제 3절 1963년 작품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클레오파트라’	59
1. 작품 개요	59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61
제 4절 1999년 작품 레오노어 바렐라 주연의 '클레오파트라'	71
1. 작품 개요	71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73
 제 4장 결 론	 86
 참 고 문 헌	 89
ABSTRACT	㉓

그림 목차

<그림 1-1>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묘사한 조각	15
<그림 1-2> 클레오파트라의 초상이 담긴 금화	15
<그림 1-3>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모습	15
<그림 1-4> 비너스 궁에 세워진 클레오파트라 금상	16
<그림 1-5>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한 클레오파트라 얼굴	16
<그림 1-6>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양면으로 발행한 로마 동전	16
<그림 2-1> 오시리스	16
<그림 2-2> 이시스	16
<그림 3-1> 호루스의 눈	24
<그림 3-2> 이시스 여신 벽화	24
<그림 4-1> 중왕국 왕자의 관	32
<그림 4-2> 왕실여인의 머리장식	32
<그림 4-3> 중왕국 때 여인의 가발	32
<그림 4-4> 화장을 하는 여인의 부조	32
<그림 4-5> 투탕카멘의 왕좌의 그림	32
<그림 4-6> 람세스 2세 부인 네페르타리	32
<그림 4-7> 이시스의 관	33
<그림 4-8> 통일된 이집트의 관	33
<그림 4-9> 투탕카멘의 가면	33
<그림 4-10> 네메스와 가발을 쓴 우삽티	33
<그림 4-11> 왕의 관대	33
<그림 4-12> 투탕카멘의 탑헤드	33
<그림 5-1> 튜닉	37

<그림 5-2> 칼라시리스와 킬트 스커트	37
<그림 5-3> 쉬스 스커트	37
<그림 5-4> 하이크	37
<그림 5-5> 투탕카멘의 왕좌	40
<그림 5-6> 무용수와 구경꾼들	40
<그림 5-7> 클레오파트라 장신구	41
<그림 5-8> 독수리와 뱀 모양의 목걸이	41
<그림 5-9> 호루스 눈 모양의 목걸이	41
<그림 5-10> 클레오파트라의 장신구	41
<그림 5-11> 신성 풍뎡이 모양의 반지	41
<그림 5-12> 옥수로 각하여 만든 반지	41
<그림 5-13> 상아와 흑단으로 만든 머리핀	41
<그림 5-14> 나무에 도금하여 홍옥으로 장식한 거울	41
<그림 6-1> 비비안 리	43
<그림 6-2> 어린 철부지 이미지의 메이크업	49
<그림 6-3> 여왕의 모습을 갖춰가는 클레오파트라	49
<그림 6-4> 웨이브를 준 그리스 여인의 머리형태	49
<그림 6-5> 어깨 양쪽으로 굽게 땀아 내린 머리형태	49
<그림 6-6> 카라미스트람을 이용한 웨이브 연출	49
<그림 6-7> 독수리 날개로 장식된 왕관	49
<그림 6-8> 금으로 장식한 가발과 뱀 머리 장식과 파시움	50
<그림 6-9> 가늘게 땀은 머리 가발에 머리 끝 부분에 금속으로 장식한 노프렛 의 형태	50
<그림 6-10> 굽게 땀은 머리에 금으로 장식한 헤어스타일	50

<그림 6-11> 우라에우스의 피부를 닮은 가발의 형태와 뱀머리로 장식한 왕관	50
<그림 6-12> 넓은 천을 이용하여 머리에 둘러쓰던 로마의 복식 형태	51
<그림 6-13> 인위적인 주름의 스커트와 쉐도트 장식	51
<그림 6-14> 쉬즈 스커트형태의 복식과 쉐도트 장식	51
<그림 6-15> 튜닉 형태의 복식	51
<그림 6-16> 칼라시리스의 복식 형태	51
<그림 6-17> 1940년대 줄을 이용한 앞 여밈형태의 복식	51
<그림 7-1> 소피아 로렌	52
<그림 7-2> 요부 이미지의 메이크업	57
<그림 7-3> V자 형태의 앞머리 라인	57
<그림 7-4> 터번 형태의 푸른 가발	57
<그림 7-5> 나란히 정리된 웨이브 진 앞머리	57
<그림 7-6> 망과 금속 장식품으로 장식	57
<그림 7-7> 인위적으로 만든 웨이브로 장식	57
<그림 7-8> 쪽머리 형의 업스타일	57
<그림 7-9> 깃털로 장식된 헤어스타일	57
<그림 7-10> 왕권을 상징하는 장신구	57
<그림 7-11> 쉬즈스커트의 형태	58
<그림 7-12> 칼라시리스의 상의에 나타나는 주름 표현	58
<그림 7-13> 튜닉의 형태에 밑단과 소매 끝을 장식	58
<그림 7-14> 투명 천을 이용한 의상	58
<그림 7-15> 칼라시리스의 하의에 나타나는 주름을 표현한 의상	58
<그림 7-16> 튜닉의 형태의 의상	58
<그림 8-1> 엘리자베스 테일러	60
<그림 8-2> 물고기 모양의 눈꼬리	67

<그림 8-3> 삼각형의 눈꼬리	67
<그림 8-4> 호루스 눈의 형태	67
<그림 8-5> 왕권의 상징인 도리깨와 지팡이	67
<그림 8-6> 통일된 이집트 관의 형태	67
<그림 8-7> 별집 형태의 헤어스타일	67
<그림 8-8> 시저의 동전으로 만든 파시움	67
<그림 8-9> 금속의 장식과 함께 땀은 머리	67
<그림 8-10> 뱀의머리로 장식된 관	67
<그림 8-11> 이시스 여신을 모방한 장면	68
<그림 8-12> 노프렛 형태	68
<그림 8-13> 원추형의 금속으로 만든 가발	68
<그림 8-14> 금속으로 장식된 땀은 가발	68
<그림 8-15> 터번형태의 가발	68
<그림 8-16> 장식된 사각형태의 천	68
<그림 8-17> bee-hive형의 헤어스타일	68
<그림 8-18> bee-hive형의 헤어스타일	68
<그림 8-19> 긴천을 이용한 머리쓰개	68
<그림 8-20> 옆트임이 있는 튜닉 형태의 의상	69
<그림 8-21> 한쪽 어깨를 드러낸 튜닉형태의 의상	69
<그림 8-22> 뱀 문양의 자수가 있는 의상	69
<그림 8-23> 가발 보관대	70
<그림 8-24> 화장을 하고 있는 장면	70
<그림 8-25> 화장 기술을 연습하는 장면	70
<그림 8-26> 가발을 정리하는 장면	70
<그림 8-27> 손톱과 발톱을 다듬고 있는 장면	70

<그림 9-1> 레오노어 바렐라	71
<그림 9-2> 유혹하는 장면의 메이크업	78
<그림 9-3> 전투 장면의 메이크업	78
<그림 9-4> 로마 방문 시 녹색 아이섀도우	78
<그림 9-5> 장례식 장면의 내추럴 화장	78
<그림 9-6> 자살 장면의 금빛 아이섀도우	78
<그림 9-7> 블루 아이섀도우를 이용한 화장	78
<그림 9-8> 반머리 묶은 형태	79
<그림 9-9> 반머리 땀은 형태	79
<그림 9-10> 내추럴 웨이브	79
<그림 9-11> 반머리 묶은 형태	79
<그림 9-12> 뒤로 땀은 머리 형태	79
<그림 9-13> 쪽머리형의 업스타일	79
<그림 9-14> 아프테관 형태	79
<그림 9-15> 독수리 깃털 모양의 관	79
<그림 9-16> 우라에우스로 장식된 관	79
<그림 9-17> 전쟁터에서의 헤어장식과 의상	79
<그림 9-18> 키톤 형식의 의상	79
<그림 9-19> 이시스 여신을 상징하는 관	79
<그림 9-20> 튜닉 형태의 의상	80
<그림 9-21> 한쪽 어깨에 걸친 히마티온	80
<그림 9-22> 로마 방문 시 복식	80
<그림 9-23> 키톤 형태의 의상	80
<그림 9-24> 전쟁터에서의 복식	80
<그림 9-25> 키톤과 히마티온	80

<그림 9-26> 키톤에 히마티온을 걸친 형태	80
<그림 9-27> 튜닉 형태의 의상	80
<그림 9-28> 히마티온을 묶은 형태	80
<그림 10-1> 1946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85
<그림 10-2> 1953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85
<그림 10-3> 1963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85
<그림 10-4> 1999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85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인간이 아름답고자 하는 욕구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모로 표현된다. 인간은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위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꾸미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발전을 거듭해 외모는 전문화된 시점에 있다.

오늘날 전문화된 피부 관리, 염색, 향수, 색채화장, 매니큐어 등 대부분의 미용 행위는 고대이집트의 여인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의 미용기술은 현대미용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을 이루고 있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러한 이집트 미용기술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따라서 미용문화에 있어서 이집트의 시대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미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어지며, 고 왕국에서부터 이어진 미용술을 누구보다 잘 활용 했던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미용문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인류 역사상 미의 대명사로 가장 유명한 여성이며, 현대에 와서도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세상을 뒤흔들만한 외모를 가진 요부 묘사하기도 하고, 일부 다른 이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외모는 뛰어나지 않지만 지성과 통찰력을 가진 훌륭한 통치자로 묘사하기도 한다.

클레오파트라를 재현한 1946년에서 1999년까지의 4편의 작품도 각기 다른 이미지의 클레오파트라를 그리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었고, 현대인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째,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자료는 부조나 동전, 두상 등에 남겨진 모습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모습이 다소 거칠고 둔탁하게 남겨있어 정확한 모습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클레오파트라의 유물들은 거기에 새겨진 글이나 넓은 두건과 같이 여왕이 사용했을 장신구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둘째, 클레오파트라가 살아 있을 때의 기록은 대부분 적국 로마의 시각에서 쓰여 졌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를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후대의 문헌이나 영화, 그림, 조각 등 예술작품들이며, 이 작품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그 모습들은 제작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를 각각 다른 시점으로 해석하여 재현하고 있는 4편의 영화 속에서 제작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미지는 클레오파트라를 재현한 영화를 통해 조금 더 시각화하고, 재현된 영화 속의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클레오파트라의 고증 자료와 영화제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유행패턴을 통해서 분리해냄으로써 좀 더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에 가까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해 낼 수 있다.

강인한 통치자이면서도 사랑과 열정을 가진 완벽한 여성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의 패턴은 2000여년이 지난 현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의 영화자료인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클레오파트라’ 제작 당시인 1960년대에도 그와 같은 메이크업 패턴은 유행하였으며, 2005년 가을 트렌드 메이크업의 경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현대 메이크업에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객관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금 더 역사에 가까운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으며, 이로써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제작된 후대의 또 다른 클레오파트라 재현 작품의 이해와 함께 현대 메이크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자료는 고대벽화나 후대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 문학작품, 그리고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위주로 하여 부조나 동전, 흉상,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견된 유물 등의 고증 자료들과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한 영화 4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증자료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의 성장배경과 아름다운 여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집트 통치자로서의 객관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 네 편은 각기 다양한 시점으로 해석되어지는 클레오파트라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레오파트라의 역사 속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의 성장 과정과 왕위에 오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클레오파트라가 백성들에게 완벽한 통치자이자 절대적 권력의 신적인 존재로 남기위해 닦고자 노력하였던 이시스 여신의 이미지와 외모적인 특징들을 알아본다.

둘째,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자료가 동전이나, 부조, 흉상 등에 불과하고, 거기에 담긴 모습 들조차도 거칠고 세밀하지 못하여 당시 이집트 여인들이 신분에 따라 입고, 장식하였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장신구와 복식 등을 알아봄으로써 클레오파트라의 외모를 추정해보고 이것으로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영화에서 나타나는 캐릭터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영화감독과 의상

및 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영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속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의상과 분장은 그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의 문화적 환경과 패션 경향 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를 반영하기도 하는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들이 어떠한 시점으로 클레오파트라를 그리고 있으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시대적, 문화적 영향과 영화 속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반영하여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재현했는지를 알아본다.

제 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며,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된 영화에서 그러한 자료를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레오파트라의 역사 속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장신구에 관련된 역사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 자료 검색, 논문, 학술지, DVD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1946년 작품에서부터 1999년 작품까지 각각 다른 시점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재현하고 있는 영화 DVD에서 정지된 화면을 통해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석하였다.

제 2장 일반적인 고찰

제 1절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인물분석

1. 클레오파트라의 생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7세¹⁾는 기원전 69년에 이집트가 아닌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에서 태어났으며,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자손들 중 학문에 가장 열의를 보이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남녀 자식들을 모두 똑같이 교육했다. 어린 클레오파트라 역시 그리스 고전문학, 데모스테네스의 수사학,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토스의 역사학 등을 공부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특히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의학 등 여러 과학 분야에 흥미를 보였다. 그 밖에도 그림 그리기와 노래에 재능이 있어 7현 리라²⁾를 다룰 줄 알았으며, 운동신경이 뛰어난 데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 춤과 승마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왕조 내에서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웠으며 에티오피아어, 헬거인어,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 메디아어, 파르티아어 등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언어에 능통 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자신에 대한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 시켜줬고, 그

1) 클레오파트라 필로파토르 (Cleopatra Philopator, 클레오파트라7세의 원명),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몇 안 되는 이름을 계속 돌려썼다. 베레니케, 아르시노에, 아니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의 클레오파트라가 사용되었다. 로라포맨 著, 이기문 譯, (1999)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효영 출판, p.55.

2) 리라(lira) : 현악기로 배(梨)모양이며 발칸반도의 민속악기중의 하나이다. 조율법과 음역이 다양하며 ‘리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기 리르(lyre)의 한 형태(뜻는 현악기)인 리라(lyra)로 잘못 쓰였다.

런 후에도 더욱 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지식 외에도 클레오파트라라는 지적인 감각과 재치가 남달랐으며,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호기심도 강했다. 성장기에는 탁월한 지성에 날카롭고 인내심이 많아 실제로 훨씬 더 성숙해 보였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도 있었지만 때로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왕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에 처하기 쉬웠고 이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앞길을 쟁취해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성향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형제를 해하거나, 어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제거되기도 하였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클레오파트라라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유년기를 보냈다.

공주시절 클레오파트라라는 전해지는 전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며, 이집트의 모든 것은 통치자의 소유였고, 농업, 생산, 교역 활동에서 나오는 이득의 일부가 왕실에 바쳐졌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개인 소유의 호화로운 처소, 하인, 말, 왕실 항구의 남쪽 빛 바다에 띄울 작은 배가 있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향료로 목욕하고 수입 비단옷 같은 최고급 옷을 입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선생들과 세계최고의 도서관이 클레오파트라의 지성을 단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화려함과 특권 속에서도 클레오파트라의 지위와 가족 문제가 그녀를 언제나 외톨이로 만들었다. 생모는 클레오파트라가 엄마를 인식하기도 전에 죽었고 형제들은 왕족으로 태어난 운명 때문에 혈육이기 전에 적이었다.³⁾

이집트를 통치하려면 우선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또한 어른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은 로마의 운명과 얽혀있었다. 클레오파트라가 아홉살이던 기원전 60년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세 사람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클레오파트라가 파란 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로마에 엄청난 빚을 해

3) 로라포맨 著, 이기문 譯, 앞의 책, p.55.

결하지 못하고 이집트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인 로마와의 협정을 생각하였으며, 빚을 갚기 위한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났고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게 되자, 클레오파트라와 미래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해지고 위험에 휩싸이게 된다. 클레오파트라는 왕권을 놓고 복잡하게 경쟁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형제의 죽음을 보게 되고 그 후 더욱 학업에 매진하거나 혹은 성장기에 한창 피어나는 몸에 봉대를 감아 어려보이도록 하는 등 언니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 시시한 공부벌레에다 어린이로 보여서 죽일 가치를 못 느끼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 즈음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로마의 폼페이우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집트로 입성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던 클레오파트라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국고에 의해 나라가 빼앗기고 또한 금품을 로마에 받침으로써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본 클레오파트라는 나라의 경제력과 로마의 힘은 자신을 지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 마침내 열여덟 살의 클레오파트라 필로파토르(Cleopatra Philopator)를 왕위에 올리게 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대를 이어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왕이나 여왕을 신성 시 했기 때문에 파라오들은 아몬이나 호루스와 연관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과거의 이집트 신들처럼 왕족들 간에 상피(相避)를 행해서 남매끼리 결혼이 이루어졌다.⁴⁾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나이인 18세에 왕좌에 오르게 되고 더욱이 백성들에게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더 파라오인들이 섬겼던 고대 종교를 포용해야 함을 깨닫고 신들은 이집트의 신을 섬길 뿐 아니라, 자신 또한 신이 되어야 한다고 확

4) 로라포맨 著, 이기문 譯, 앞의 책, p.43.

상피(相避) : 가까운 친척인 남녀사이의 성적 관계

신했다. 따라서 남자 파라오처럼 옷을 입고 여신 이시스를 모방해야 했던 것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왕위에 오른 시기의 이집트는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고, 클레오파트라의 왕위 계승을 반대한 평의회는 클레오파트라를 밀어내기 위해 흉년의 고통을 받는 백성과 클레오파트라를 증오했던 무리들을 규합하였다. 어렸을 때처럼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 번 적들에게 홀로 둘러싸이게 되어 날마다 새로운 음모와 위협에 놓여지게 되었다. 평의회가 클레오파트라의 권력을 서서히 앗아가면서 이제는 암살의 위협마저 피부로 느껴질 지경이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클레오파트라는 왕위에 오른 지 겨우 3년 만에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이때 로마의 권력을 잡고 있던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분리로 인해 접전을 버리고 이에 밀려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 곳에 머물게 되고 평의회는 수령을 이집트 젊은 왕의 보호자로 임명하는 율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를 뒤쫓던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이집트에 들어오게 되고 이 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집트는 카이사르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과 이집트의 운명이 로마의 손에 달려있으며, 로마의 권력은 카이사르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얻기 위해 시저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이집트 여성들의 뛰어난 방중술⁵⁾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고, 클레오파트라 역시 산수, 천문학과 마찬가지로 방중술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가 알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이론에 그쳤을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처녀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카이사르를 만나야만 했으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동생이 지키고 있는 궁에 있는 시저를 만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양탄자 속에 들어가 길게 누운 클레오파트라를 아폴로도로스가 끝을 묶은 후 성문을 통과해 시저의

5) 방중술 (房中術) <명사> 방사(房事)의 방법과 기술

숙소로 가지고 가져가게 했다.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내고, 다음날 시저는 프톨레마이오스13세를 불러들여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통치할 것을 명하게 된다.

로마의 비평가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저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두 사람의 첫 만남 이후 클레오파트라의 인생을 살펴보면 꼭 정치적인 목적만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⁶⁾

클레오파트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로마에 의지하여 알렉산드리아에 권력과 영화를 다시 가져다주었다. 이 후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지도자인 시저의 아들로 카이사리온을 인정받으려 하였으며, 동시에 로마의 통치자인 시저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자신의 권력에 대응하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로 남기위해 오소르콘 2세의 세 수호신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도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태어난 호루스⁷⁾와 동일시하였다. 이는 이시스의 원반과 뿔이 어우러진 머리장식을 한 클레오파트라와 아몬신을 상징하는 숫양의 뿔로 장식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의 이중 왕관을 쓰고 있는 카이사리온의 모습이 담긴 <그림 1-3>에서도 알 수 있다. 카이사르가 카이사리온을 아들로 인정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카이사르는 새로 지은 비너스 궁에 <그림 1-4>인 클레오파트라 금상을 세웠으며, 모든 로마인들의 어머니인 비너스는 로마 판 이시스 여신이라면서 대담하게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였다.⁸⁾

기원전 44년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와 로마 군주제를 확립하기를 꿈꾸었고, 시저가 없는 지금 이집트의 꿈과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인물을 안토니우스로 생각하고 로마가 이집트 지배를

6) 로라포맨 著, 이기문 譯, 앞의 책, p.108.

7) 대모신 이시스와 그녀의 오빠이자 남편인 죽음의 신 오시리스의 아들, 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멀리 있는 존재라는 뜻

8) DVD <the real cleopatra> (2004), 다우리 엔터테인먼트

위해 보낸 안토니우스와 결혼한다. 이에 미래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과의 협정을 깨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기원전 31년 악티움에서 안토니우스가 지휘하는 이집트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후 안토니우스는 자살을 하게 되고 로마에 전시물로써 끌려가게 된 클레오파트라 또한 코브라의 치명적인 독으로 “코브라에 물린 통치자는 순식간에 고통 없이 신들이 보살피는 불멸의 세계로 가게 된다.”고 전해지던 이집트의 설화처럼 신들이 돌보는 영역으로 가게 된 것이다.⁹⁾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일생을 산 것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시스 여신이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시스 여신을 닮기 위해 노력도 하였지만, 시저와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 태어나고 이 후 주변 인물들의 배신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시저까지 여신 이시스의 삶과 비슷하였으며, 이는 이집트 백성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여신으로 섬기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는 호루스가 상, 하 이집트를 통일하여 하나 된 이집트를 만들어 통치하였던 것처럼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카이사리온도 이집트와 로마를 포함한 전 세계를 통일된 국가로 통치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2. 이집트 신화의 여신 이시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는 제정일치의 사회였다. 군주와 종교적 절대자를 동일시하는 전통은 대부분의 고대 문명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가장 정제되고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집트의 신화에는 유난히 왕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실존했던 파라오와 연관된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이집트가 생성된 초기에 군주의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 신들의 이야기까지 사실상 왕권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지 않은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어 정도이다. 결국

9) 로라포맨 著, 이기문 譯, 앞의 책, p.81.

고대 이집트에서 신화는 단순히 신성한 존재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한 국가를 통치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을 군주의 지배하에 두는 데 정당성을 부여해 주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보장해 주는 근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클레오파트라 또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위하여 자신과 시저, 그리고 그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대지의 여신 이시스와 오리시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호루스와 동일 시 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¹⁰⁾

이시스(Isis)<그림 2-2>는 고대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여신 중의 하나로 이시스라는 이름은 '왕좌'를 뜻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그리스어로 바꾼 것으로, 게브(geb)¹¹⁾와 누트(nut)¹²⁾의 장녀로서 이시스의 오빠인 오시리스<그림 2-1>의 아내가 되었다. 오시리스는 다른 신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았으며 하늘의 별들까지 그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 왕권의 표상은 구부러진 지팡이¹³⁾와 도리깨, 그리고 '하늘을 꿰뚫는' 것을 의미하는 기다란 깃털이 꽂힌 <그림 2-1>과 같은 '아테프(Atef)'왕관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자비롭고 훌륭한 왕과 왕비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있어 이집트는 황금기를 누리게 된다.¹⁴⁾

이시스는 자신과 더불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아 오시리스의 개화 사업을 도와, 여자들에게 곡식을 뺏고 삼으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는 방법을 가르쳤다. 또한 이시스는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혼시켜 가정생활을 하게 했다. 오시리스가 세계를 평화적으로 제패하기 위해 떠난 후 이시스는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왕국을 현명하게 지배했다. 그들은 세상에 농업과 법, 문명을 선사한 인류의 은인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 때문에 악의 신이자 그들의 형제인

10) 조지하트 著, 이웅균 외 1인 譯 (1999), 『이집트 신화』, 범우사, p.4.

11) 이집트 신화의 대지의 신

12) 이집트 신화의 하늘의 신

13) 지배와 통치로써 권위를 상징

14) 조지하트 著, 이웅균 외 1인 譯, 위의 책, p.60.

세트는 그들을 질투하고 증오했다. 세트는 질투심에 오시리스를 죽여 상자에 넣은 후 나일 강에 던져 바다로 흘러가게 했다. 이시스가 남편의 주검을 찾아서 이집트로 들고 오자 세트는 다시 그것을 열네 조각으로 찢어서 악어와 물고기들이 먹도록 나일 강에 다시 던져버렸다. 그러나 이시스는 헌신적으로 열세 조각을 찾아내서 마법으로 육체를 부활시켰고, 그 후 오시리스는 죽음의 신이 되었다. 이러한 이시스에 관한 전설은 이시스가 본래 독립된 신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상형문자로 표기된 이 여신의 이름에는 왕권의 상징이 포함되어있다. 이시스는 보호의 여신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서까지도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주문과 마술의 힘을 행할 수 있다고 믿어졌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머리 위에 왕좌를 그려 넣어 이시스 여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시스에게 하토르가 선물한 하토르와 공유하는 상징인 두 개의 쇠뿔사이에 태양 원반이 위치한 모습을 하기도 한다. 이집트를 최초로 통치했다고 알려진 신화의 왕 오시리스의 왕비 자격으로 <그림 2-2>와 같이 이시스의 이마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코브라가 달려있고, 12마리의 코브라가 둘러싼 왕관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하토르의 쇠뿔을 받치고 있다.

또한 매의 머리 모양을 한 그들의 아이인 하늘의 신 호루스는 음흉한 세트를 죽이고 세계를 악의 구렁에서 구한다. 이렇듯 이시스는 생산력의 여신으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움직여 남편을 부활시키고, 거기다 아들도 오시리스가 창설한 태양의 제국을 모든 악에서 대항하여 수호하도록 키워낸 훌륭한 여성이기도 하다. 후세 까지도 이시스는 이상적인 현모양처로 숭배 받았으며, 이시스의 창의성과 동정심은 이집트 신들 중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으로 묘사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이시스는 여성적인 가치구현으로 숭배 받았으며, 강력한 마법을 쓸 줄 알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명을 바꿀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지닌 열정의 상징으로서의 이시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완벽한 권력을 지상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강한 호소력을 갖게 하였다.

3.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과거뿐 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회자되고 있으나, 얼굴에 관한 정확한 근거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파스칼(pascal)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 작가 플루타크(plutarch)는 “클레오파트라가 파티 장 같은데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정도의 미모는 아니다.” 라고 했다.¹⁵⁾

현재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얼굴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당시 제작되어진 흉상이나, 동전 등이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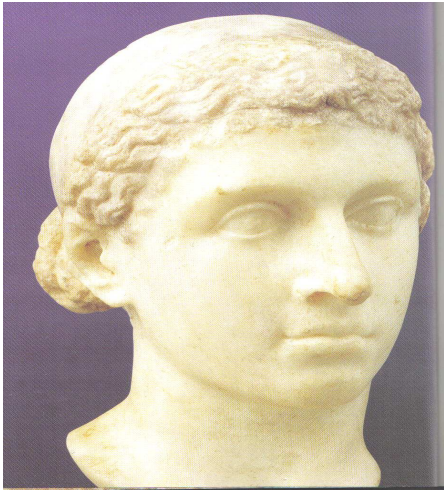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 클레오파트라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의 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림 1-1>의 흉상을 보면 뒤로 묶은 머리 모양, 커다란 코, 넓은 헤어밴드는 등이 여왕의 모습이란 것을 증명해 주지만, 이 당시 흉상들은 성명서를 발표할 때 쓰려고 제작한 된 것으로 실제 모습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의 통치 기간 동안 발행된 그리스어로 클레오파트라 여왕이라 적혀진 <그림 1-2>의 동전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양면에 담아 발행한 <그림 1-6>의 동전은 가장 유력한 실마리 제공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전은 클레오파트라의 명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실제 모습과 비슷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전에 찍힌 얼굴은 실제 모습보단 투박하고 서툰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모습과 공통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는 동전에 새겨진 그 모습처럼 생겼을 것이라 가정하고 현대 기술을 도입해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해 낸 모습이 <그림 1-5>이다. 뚜렷한 눈썹과 아랫

15) DVD <the real cleopatra> (2004), 다우리 엔터테인먼트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 : 근대 확률 이론을 창시하였고, 압력에 관한 원리를 체계화 했던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종교철학자, 작가
플루타크(plutarch, A.D. 45~126)

입술이 굴곡진 도톰한 입술, 긴 코 등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해 낸 모습은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얼굴과 유사할 것이라 추측한다.

플루타크는 클레오파트라를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고 대화술에 능했으며, 밝은 목소리의 소유자라 하였으며,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서 말하는 미인의 기준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고 기록하였다. 클레오파트라의 오톱한 코는 이상적인 로마 미인보다 조금 길었고 그 밖에도 다른 결점이 있었다. 당시에는 하얀 피부를 아름답다고 하였으나 클레오파트라는 피부가 약간 검은 편이었으며, 이는 페르시아 피가 섞인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시집온 할머니의 영향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적갈색의 윤기 있고 아름다운 머릿결에 지성과 의지로 빛나 웅장한 사람을 끄는 얼굴이었으며 목소리는 음악과 같은 저음의 목소리에 타고난 이야기꾼 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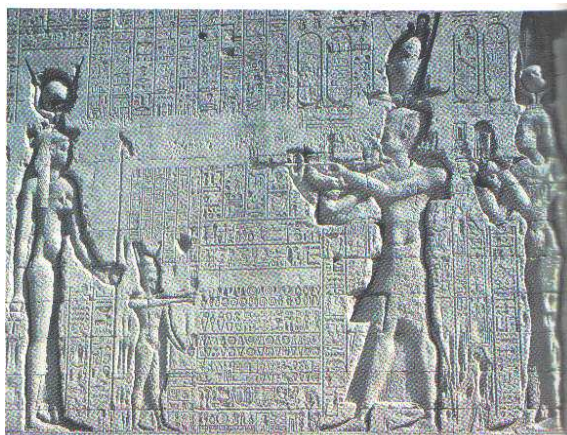
< 그림 1-1 >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묘사한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조각
출처: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27



< 그림 1-2 >

클레오파트라의 초상이 담긴 금화
출처: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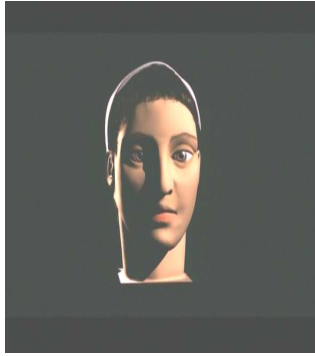


< 그림 1-3 >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
출처: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120



< 그림 1-4 >
비너스 궁에 세워진
클레오파트라 금상



< 그림 1-5 >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한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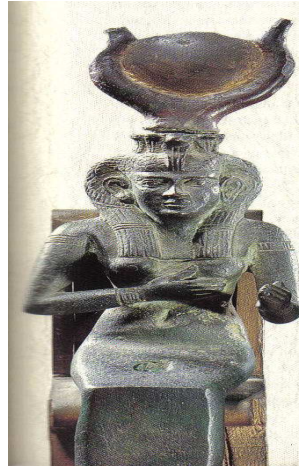


< 그림 1-6 >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양면으로
발행한 로마 동전

-출처 : DVD <the real cleopatra> 다우누리 엔터테인먼트



< 그림 2-1 > 오시리스
출처 :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41



< 그림 2-2 > 이시스
출처 :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41

제 2절 이집트 여인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이집트 여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자연환경에 의한 것과 사회적 환경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전자는 기후와 풍토적 요인이 있고 후자는 종교, 예술, 정치, 경제, 사상, 철학 등 광범위한 문화적 요인들이 있다. 이집트 여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나일강과 광대한 사막, 그 위를 비추는 뜨거운 태양 등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극히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서 형태의 다양함과 미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집트인들은 더운 기후에 적응하고 종교의식을 중시하였으며, 화장을 필수적으로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높은 문명을 자랑했고 인종적 우월감의 심볼로 자신들의 적갈색 피부와 흰색 린넨과의 대비미를 자랑했다. 그들은 또한 흰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눈을 나일 블루(Nile blue)라는 청색으로 그려 더욱 시원하게 보이도록 했다. 붉은 색은 저주의 색으로 여겨 잘 사용하지 않았고, 동물의 털도 청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교적 의식 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¹⁶⁾

1. 메이크업

1) 이집트 화장의 기원

화장품의 기원을 고대의 종교, 주술, 의료 등의 행위에 사용한 제품들을 화장품으로 간주하여 생각하면 메이크업은 고대문명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화장은 인간을 아름답게 하기위한 수단으로써의 독립적인 개념보다는 오랜 기간 주술 및 의학, 약학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화장은 점차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례적 행위로 자리 잡았으나 특수층과 평민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미용

16) 백영자 외 1인, (1989), 『서양복식문화사』 도서출판 경춘사, p.26.

술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성직자와 같은 계층의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미용술은 B.C. 3000년부터 성직자 계층이 원료나 그 혼합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고, 입문식이나 장례식에서 몸을 단장하는 정해진 의식의 절차로 포함되었다. 이렇듯 고대 이집트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몸치장은 무엇보다도 의식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

향수와 화장품은 신상의 단장과 같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고, 후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신들의 장례식의 모습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미의 기준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신과 닮기 위해 화장을 했다.¹⁷⁾

13세기말 파리와 로마에서 화장을 경멸하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화장은 의학에서 분리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그 이후에 화장과 화장품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즈음은 화장품 수요가 특수층에 한정되고 제조기술도 매우 치졸하여 백분·향료 등은 멧돌에 갈아 체에 치고, 향수는 꽃잎을 압착시켜 만드는 등, 약을 만들 듯 끓이거나 달이는 정도였다. 향료와 화장품 제조기술은 천연재료를 사용해 미를 가꾸려는 이집트 여인들에 의해 발달되어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시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가 절정의 시대였다.¹⁸⁾

이집트인들은 화장품을 만들 만한 원료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페니키아사람들이 지중해 주변의 온갖 나라에 그런 재료들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화장술까지도 고안해냈다. ¹⁹⁾

화장품 성분의 수와 종류는 단순하다. 이집트 산 백리향과 오리가넘이 발리노스라는 물질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그 기초성분은 대부분 아라비아에서 전해진 몰약²⁰⁾, 유향, 감송²¹⁾이었고 편도²²⁾와 올리브유는 물론 참기름

17) 베이트리스 폰타넬 著, 김보현 譯, (1979), 『치장의 역사』 김영사, p.p. 7~8.

18) 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1999), 『향. 향수 이야기』 도서출판 한송, p.52.

19) 니콜 아브릴 著, 강주현 譯, (2001), 『얼굴의 역사』 작가정신, p.28.

20) 아랍어로 '맛이 쓰다'라는 뜻의 'murr'에서 유래하였으며, 쓴맛이 나며 향기가 좋고 노란색을 띠는 적갈색의 함유수지(含油樹脂) 고무로 콤미포라 속(一屬 Commiphora)의 작고 가시가 있는 꽃피는 교목에서 혹은 콤미포라 미르라(C.

도 사용되었다.

2) 화장품 및 화장의 방법

화장품에 관한 초기 기록은 이집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B.C. 3000년 무렵 티니스 왕조시대에 죽은 왕과 함께 묻힌 화장품과 연고가 발견되었고, 1922년 투탕카멘왕의 무덤에서는 향료를 담은 연고병이 발견되었으며, 묘가 발견되었을 때 이집트의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보고했다. “즉 이집트의 상류부인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사용되고 있어서 아름다운 조각을 하거나, 상아에 문양을 넣은 훌륭한 화장대에는 여러 가지 화장 도구가 놓여 있었다. 그녀들은 아라바스타²³⁾의 병에 들어 있는 검은 테의 붓으로 눈꺼풀을 채색하였다. 또 외출을 할 때에는 고형분을 가지고 나가 아침에 한 화장이 흐트러졌을 때 그것을 얼굴에 정성스럽게 손질하였고 몸은 기름을 발라 윤기를 띠게 했으며, 강한 눈 화장, 장밋빛 볼, 분홍이나 양홍 색 입술 등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는 것이다.²⁴⁾

myrrah)나 콤비포라 아비시니카(*C. abyssinica*) 같은 감람과(橄欖科 *Burseraceae*) 식물에서 얻어진다. 몰약은 고대 근동(近東) 지방이나 중동지역에서는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값비싼 향료·향수·화장품의 성분이었으며, 약으로는 국소도포제 및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했다.

- 21) 층층나무목(一目 *Cornales*) 두릅나무과(一科 *Araliaceae*)에 속하는 북아메리카산 식물로 향긋한 냄새가 나는 큰 뿌리가 특징이다. 키가 3.5m 정도 자라며 잎은 심장형으로 3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꽃은 가운데 줄기의 끝에서 무리지어 핀다.
- 22) 편도(扁桃) [명사] 장미과의 낙엽 교목. 소아시아 원산으로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람. 높이 6m가량. 열매는 복숭아 비슷한데 익으면 터져서 속에 든 씨를 먹는다. 단맛과 쓴맛이 나는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식용 또는 약용함. 지중해 연안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많이 재배함. 아몬드
- 23) Alabaster. 설화석고 礬花石高. 대리석과 비슷한 반투명의 흰 돌
- 24) 히데오아오기 著, 유태순 외 2인 譯., (2004), 『서양 화장 문화사』 동서교류, p.19.

(1) 피부에 관련된 화장품과 화장방법

이집트 여성들은 농민이나 노예가 아닌 한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향이 있는 연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부의 색을 바꾸는 화장품이기 보다는 뜨겁고 건조한 기후 속에서 피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집트 여인들은 피부를 위하여 나프론²⁵⁾으로 몸을 문지르거나, 수아부²⁶⁾로 각질을 제거하고 향유로 마사지를 하였다. 몸은 금빛을 띤 황토색 기름을 발라 윤기를 내고 가슴정맥과 관자놀이의 정맥들은 반짝이는 금빛과 차가운 대조를 이루는 푸른색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그려 넣었다.²⁷⁾ 특히, 황금의 피부로 불리어지는 오클 풍의 피부를 선호하여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집트 여인들은 피부 미용을 위하여 크림, 오일, 화장용의 고약 등도 애용하였고, 몸에는 향유를 이용하여 노출이 많은 피부를 보호하였다. 피부에 바르는 색소로는 적갈색 헤나 염료와 이끼에서 얻은 보랏빛 리트머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머리를 염색하는 것뿐 만 아니라 손톱, 발톱에 까지 적갈색 헤나(henna)²⁸⁾를 채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채색은 사막의 먼지로부터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보호하였다. 이렇게 손톱에 색을 칠하는 풍습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거의 대부분의 미라가 붉게 칠한 손톱을 가지고 있는에서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손톱을 물들이는 풍습은 이집트나 페르시아,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다.²⁹⁾

이집트 전문학자 마스페로(Maspéro)³⁰⁾도 고대 이집트에서는 눈꺼풀이나

25) 나일강의 진흙

26) 표백토와 재를 섞은 반죽

27) 방수진 「서양 메이크업의 역사에 관한 연구」 목표과학대학 논문집 제 24집 2호, 2000, p.358.

28) 헤나 염료는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원산의 관목 잎을 가루로 만든 색소로, 20세기에도 다시 등장하여 모발 염료로 더러 쓰고 있다. 박일록 (1989), 『서양복식사』 원광대학교 출판부, p.25.

29) 하루야마 유키오 著, 임희선 譯, (2004) 『화장의 역사』 사람과 책, p.167.

손톱, 손바닥뿐 만 아니라 볼이나 입술에 색을 칠하였다고 했는데 얼굴에 색을 칠하는 화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들의 얼굴은 부피가 큰 머리형 때문에 작게 보였고, 얼굴에는 그다지 색을 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눈의 가장자리를 검게 칠하면 얼굴이 보다 하얗게 보여 표정을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가끔 하얗게 보이기 위해 레몬이나 사과즙과 같은 식물성 산을 사용하였다. 이것이 후세의 ‘포마드’³¹⁾가 어원이다.³²⁾

이집트의 생활을 처음으로 상세히 전한 것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의 『역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집트인은 결벽증이 있을 만큼 청결한 것을 좋아한다. 특히 승려는 하루에 걸러 한 번씩 온몸의 털을 깎고 매일 낮에 두 번, 밤에 두 번 물을 끼얹어 몸을 정갈하게 한다. 이것은 승려 뿐 만 아니라, 서민도 마찬가지로 몸을 청결하지 않은 것은 불명예로 생각한다. 그들은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인이 지저분한 겂옷을 입는 것을 경멸한다. 그들은 항상 바로 세탁한 아마포 옷을 입는데 그 편이 색 색깔의 옷보다 청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정신적, 신앙적으로 ‘부정을 씻는 행위’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목욕은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몹시 더운 기후 때문에 목욕과 향유가 발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당시 목욕 기쁨은 주로 올리브유와 같은 천연기쁨이었으며, 건조한 지중해 연안의 기후 탓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특히 애용되었다.³³⁾

30) Gaston Maspéro(1846~1916) 이집트 정부의 유적과 유물의 총 관리를 맡았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왕실 유물을 발견하였으며, 그의 저작으로는 『고대 동방 민족사』 3권(1895~1897), 『이집트 고고학』(1887)등이 있다.

31) 포마드는 라틴어의 과일 또는 사과

32) 하루야마 유키오 著, 임희선 譯, 위의 책, p.77.

33) 김덕록(1997), 『화장과 화장품』, 답게, p.249.

(2) 눈에 관한 화장품과 화장 방법

고대 이집트의 화장법으로 가장 널리 행해졌던 것은 눈 화장으로, 말라카이트(Malachite, 공작석 孔雀石)로 알려져 있는 녹색의 광물로부터 만들어진 아이새도를 눈꺼풀에 칠해 호루스의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표현하고 가장 자리를 검게 색칠하는 것이 화장의 포인트였다. 이 화장법은 이집트에서는 B.C. 3500년경에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에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화장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다른 민속적 신앙과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첫째는, 고대인이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악마가 체내로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 가장자리를 검게 칠했으며, 입술을 빨강게 칠한 것은 악마를 놀라게 하여 가까이 올 수 없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설로, 귀 장식과 코 장식 등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고대로부터 가장 최근까지 사안(邪眼 Devil Eye)이라 하여, 그 시선이 인간 또는 가축에게 들어가면 불행이 오고 어떤 때에는 병이 생긴다는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다. 즉, 처음에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위험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선을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하고 사악한 힘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눈 주변을 검게 칠하는 것은 사안을 따돌리기 위함이며, 미개인이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고 특이한 모양의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셋째는, 이집트와 지중해 여러 섬에서는 태양 빛이 강하여 눈병에 걸리기 쉽고, 작은 벌레가 눈에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을 보호하는 약으로 눈의 가장자리에 칠하였다. 고대에서는 공작석이라는 녹색의 돌이 최고의 안약이었으며 녹색은 재생의 상징이었으므로 가난한 사자(死者)의 무덤에서 녹색의 안약을 넣은 항아리가 묻혀 있었다.

여성들이 사용한 검은 화장재료는 향기가 있는 나무기름과 아몬드의 껍질을 검게 구워 가루로 만든 것이나 유화안티몬과 망간을 원료로 한 것이다. 안티몬은 누선을 자극해서 모래 바람에서 비롯되는 눈병을 막아주며 <그림 3-2>와 같이 눈매를 강조해주고, 눈매가 관자놀이까지 시원하게 뻗

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준다.

그것은 물고기의 형태나 <그림 3-1>와 같은 호루스³⁴⁾의 눈의 형태로 상아 또는 얇은 나무 봉으로 눈꺼풀을 칠하였다. 이 화장 재료는 콜(kohl, 회교족의 여성이 눈썹 따위를 검게 칠하는데 쓰이는 화장 먹)이라 불렀다. 콜은 눈썹과 속눈썹 밑의 피부에도 정성들여 발랐고, 멋을 부리는 여성은 콜을 검게 칠한 바깥쪽에 공작석과 터키옥을 잘게 빻아 만든 초록색과 푸른색을 차례로 칠했다.

눈가를 검게 칠하는 화장법은 동시에 눈썹을 검게 하여 눈과 균형을 이루게 하는 화장법을 만들어냈다. 이집트 여성들은 콜을 섞은 화장품을 연필처럼 가느다란 막대기에 발라 정성들여서 속눈썹과 눈썹 밑의 피부에 발랐다. 이런 화장법은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방의 여러 민족 사이에서도 일반화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풍속이 남아 있는 지방이 있다.³⁵⁾

눈썹에 색칠할 때 양쪽을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서 가는 붓질로 방연광³⁶⁾과 유화연(硫化鉛)을 이용해 양쪽 눈썹 끝이 눈 꼬리에서 약간 더 길어보이도록 검은 눈썹을 관자놀이까지 길게 발랐다.

34)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매 형태의 신. 그의 눈은 태양과 달이다. 그는 원래 하(下)이집트의 신이었다. 그러나 네켄 (그리스어로는 히에라콘폴리스)에서 왕이 호루스의 화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35) 하루야마 유키오 著, 임희선 譯, 앞의 책, p.67.

36) 방연광(方鉛鑛) : 황화연으로 납의 중요한 원료이며, 또한 황화은도 포함되어 있어 은의 원료도 됨



< 그림 3-1 > 호루스의 눈
출처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p.13



< 그림 3-2 >
네페르타리 왕비 무덤에 있는
이시스 여신의 벽화
출처 : 『복식문화사』 p.12

(3) 입술에 관한 화장품과 화장방법

이집트 여성은 오늘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색색의 조그만 단지들이 가지런히 놓인 청동이나 나무로 만든 화장 도구함을 가지고 있었다. 함에는 향수, 세안용 달걀흰자, 속돌과 면도칼(가장 비천하고 구역질나는 여자의 상징이었던 체모를 깎는 데 쓰임), 헤너, 눈과 입술에 쓰이는 각종 물감이 든 식물줄기, 최신 유행인 립 크로스 대용인 끈적끈적한 연고 등이 들어있었다. 고대 이집트는 무엇보다도 최초의,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눈 화장의 황금시대였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립스틱 기술이 확립된 것도 이 시기이기도 하다.³⁷⁾ 립스틱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상류층 남성들도 입술을 칠했고, 이집트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립스틱 색깔은 짙은 남색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선호하던 색상은 오렌지 빛과 진한 빨강색으로 젖은 나무 막대기로 그리면 색깔이 나왔다.³⁸⁾

이집트 여인들은 카민으로 붉게 입술을 칠하였고, 불과 입술에 바르는 루즈의 일종인 푸크스, 치아미백을 위한 경석 등이 사용되었으며, 황토 또한 루즈의 역할을 했다.

37) pallington jessica 著, 강미경 譯, (2003), 『립스틱』, 서울 : 뿌리와 이파리, p.19.

38) pallington jessica 著, 위의 책, p.21.

(4) 향수

고대 화장은 얼굴을 칠하는 것과 향료를 써서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향료는 고대 문명기 이래 귀중품으로서 금, 은, 보석과 마찬가지로 값비싼 상품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부를 가져오는 원천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B.C. 7세기경에 이르러 향료가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당시 상인들은 부피가 작고 값비싼 향료를 화폐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³⁹⁾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는 식물의 꽃잎이나 열매, 뿌리 등 자연에서 향을 채취하여 천연 향료를 만들었다. 조합 향료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쓰던 ‘키위’와 로마시대에 ‘스시논’⁴⁰⁾이라 불렀던 향료가 유명했고, 향료의 제조와 교역은 이집트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향료는 화장품과 더불어 대부분은 제식용으로 쓰였고, 훈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제와 미약⁴¹⁾(최음약)으로도 사용되는 등 그 사용의 목적을 종교, 미용, 신체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파라오 투탕카멘의 능묘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주로 종교 의식을 거행할 때 향료를 피웠고, 시체보전을 위한 방부제로 향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수지를 이용하여 향료를 제조하는 것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향료를 애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미이라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이집트 역사 연구로 유명한 에이벳즈는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의 서적에서 여러 가지 향료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몰약, 육계, 갈바눔 수지 등을 사용한 많은 향료 물질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구취 제거에 사용하는 향정 처방도 있었다. 에드워드 레인⁴²⁾은 이집트에는 유향

39) 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의 책, p.105.

40) 백합, 봉밀, 육계 창포, 사프론, 몰약이 주성분

41) 성적 흥분을 증가시키거나 정력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 최음제(催淫劑)나 강정제와 같은 말이다. 토사자(兎絲子) · 음양곽 등의 생약들이 쓰이며 동물들의 정소도 정력을 돋우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미약으로 사용 된다

42) 아라비안 나이트 역자

을 씹어 입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하였다.⁴³⁾

둘째, 향유는 고대 이집트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부에 바르는 향유 또는 연고가 열다섯 종류나 있었다. 종류와 구분은 주로 재료 또는 기름에 첨가한 향료에 따라 구별되었다. 이러한 향유나 연고는 피부에 좋은 향기를 내거나 윤기를 더해 주는 효능 이외에 기미를 없애거나 ‘노인을 젊게 한다’는 효과도 있었다. 식물에서 채취한 기름은 각각 고유한 향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거기에 강한 꽃향기가 첨가되었다. 그런 것들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정유(Essential Oil)’이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손을 부드럽게 하고 손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 400데나리온⁴⁴⁾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구입한 향고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⁴⁵⁾ 클레오파트라가 주로 사용했다는 키위 향유는 16가지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카다뭉(cardamom), 시프레스(cypress), 덕(dock), 벌꿀, 주니퍼(juniper)⁴⁶⁾, 머르(Merr.), 건포도, 샤프론(saffron)등으로 만들어졌으며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도취시켜 즐겁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밤의 향료로 애용되었으며 먹을 수도 있었다.

이집트에서는 육계와 감송향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료를 애용하였고 또한 이집트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는 거대한 향료 공장이 있어 다양한 향료 제조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나라와의 교역도 활발했다. 그 당시 희석제로 쓰이는 알코올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불휘발성 기름이나 포도주를 희석제로 사용하였는데 좋은 포도주를 사용하면 한층 부드럽고 좋은 향기를 낼 수 있었다.⁴⁷⁾ 바를 때 즐겨 사용했던 방법은 단단한 향고를 머리 위에 올려놓아 체온으로 향고가 서서히 녹게 하는 것이었다.

43) 하루야마 유키오 著, 임희선 譯, 앞의 책, p.182.

44) 당시 성인 1인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이었음

45) 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의 책, p.54.

46) 측백나무과(側柏—科 Cupressaceae) 노간주나무속(—屬 *Juniperus*)에 속하는 약 60~70종(種)의 향기가 좋은 상록 교목이나 관목

47) 송인감, (1998), 『향수 영혼의 예술』, 디자인 하우스, p.39.

셋째, 향을 즐기고 사용할 줄 알았던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강한 태양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피부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또한 청결을 위해 매일 같이 향유를 바르고 화장을 했다.⁴⁸⁾ 고대에 만들어진 피부 화장품은 기름에 향기를 첨가한 향유와 약간 딱딱한 지방에 향기를 첨가한 연고 종류로 연고는 화장품이면서 피부의 질병을 고치는 약이기도 하였다.⁴⁹⁾

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아로마테라피는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시시대 고대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며 처음에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향 문화가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미 자리 매김하고 있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향 물질 중 하나인 카이피(kyphi)는 유향⁵⁰⁾과 몰약, 주니퍼 등 16가지의 향이 배합된 것으로 이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좋은 꿈을 꾸게 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감각 기능을 각성시키는 목적으로 일상생활과 종교 행사에 주로 사용되었다. ⁵¹⁾

이집트의 여인들이 사용한 이러한 화장의 방법과 재료들에 관하여 클레오파트라라는 누구보다도 통달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화장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목욕, 피부 관리, 정발, 가발사용, 염색, 향유, 색채화장, 매니큐어 등 오늘날 화장의 거의 모든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당시 이러한 고대 이집트의 화장술과 화장품은 지중해의 여러 나라, 즉 아시리안, 바빌로니안,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전해져 영향을 주었다.

2. 헤어스타일

48) 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의 책, p.p.55~56.

49) 하루야마 유키오著, 임희선 譯,, 앞의 책, p.227.

50) 중동, 아프리카 위주의 감람과 식물의 수지로 노란색인 것도 있는데 매운 맛이 나며 열을 가하면 향기를 내며 태우면 밝은 연기가 나온다.

51) 이치현, (2003), 「아로마테라피 도자램프 개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이집트는 기후적으로 더운 지역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청결을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고 가발을 썼으며, 남자들은 깨끗하게 머리를 깎아서 동그랗게 하고 그 위에 가발을 사용하고, 여자는 스퀘어커트로 짧게 깎아 낸 머리 위에 가발을 얹었다. 가발은 더위를 피하거나 귀족들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착용하였으며, 가발의 형태는 가발에 보석이나 금속류를 장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다양했다. 때로는 자신의 머리에 직접 장식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장식된 가발이나 머리위에 원추형의 모자나 귀족이나 왕족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관을 쓰기도 하였다.

1) 가 발

이 시대의 남자와 여자 모두 가발을 썼고 귀걸이를 했다.⁵²⁾ 가발의 형태와 사이즈는 매우 다양했는데, 이 중에는 모자와 같이 쓰기만 하면 되는 <그림 4-12>와 같은 탑 헤드라 불리는 것이 있었고, 또는 1950년대 유행하던 페이지보이 헤어스타일이나 바로크, 로코코 시대와 같은 가발이나 곁을 하기도 하고, 땡은 가발도 있었다. 여자 가발은 종종 어깨를 덮을 만큼 부피가 컸고, 그 모양은 땡거나 묶는 방법, 머리에 장식하는 금속이나, 보석 등 장식품에 의해 매우 다양했다.

이집트 여인의 머리모양으로 오늘날 잘 알려진 것으로 노프렛(nofret)이 있다. <그림 4-1>의 노프렛은 중간 가르마를 하고 어깨부분에서 수평으로 컷트를 하여 금속제의 둥근 장식과 리본과 같은 장식줄과 연꽃 등으로 장식을 하였다. 이 밖에도 보브형이라 부르는 쇼트헤어의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이집트 유물로 발견되는 고대 왕실여인의 모습에서는 등이나 큰 두 갈래의 머리가 어깨를 걸쳐 양쪽 가슴 위로 내려오는 형태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 가발은 굽은 실다발이나 머리를 늘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림 4-3>, <그림 4-6>과 같이 금속제로 뱀의 피부를 닮게 제작하여 늘어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형태 이외에도 이집트 유물로 발견되는 흉상이나, 동전,

52) 니콜 아브릴 著, 강주현 譯, 앞의 책, p.29.

생활용품 등에 그려진 왕족이나 귀족들의 모습에서 보면 <그림 4-5>와 같이 푸른색 가발이 가늘게 땅아져서 머리에 뱀이 꼬아리를 틀 듯 두상을 돌아다니며 감아놓거나, <그림 4-4>와 같이 머리를 한 쪽 귀 옆으로 넘겨 빗어 화려한 장식품과 함께 굵게 땅아 놓는 등 화려한 색상과 값비싼 보석들로 장식된 화려하고 다양한 가발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씌워진 가발은 때로는 비대칭이지만 대개는 가장자리에 장식 술까지 달려 있었고 또는 홍옥수와 색깔이 있는 유리로 상감한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유연한 금으로 된 머리 장식들도 있었다.

이집트 여인들은 이렇게 가발을 사용하는 한편 자신의 머리를 땅아서 장식품을 장식하기도 하였으며, 클레오파트라라고 여기고 있는 두상인 <그림 1-1>을 살펴보면 단아하게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뒤통수 부분에 동그랗게 감아놓은 쪽머리 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가발의 재료로는 린넨이나 종려나무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후기에는 울이나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부피를 크게 만들어 모자처럼 사용했다. 가발은 그물로 된 캡(cap)에다 가발 재료를 땅거나 간추려 엮어서 제작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가발은 남자들은 완전 머리를 밀어낸 위에, 여자는 짧게 깎아 낸 머리 위에 얹었다. <그림 4-2>와 같은 가발은 머리와 캡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머리에서 생기는 열이 발산되고 통기도 되어 머리위에 가발을 씌우므로써 오히려 시원한 효과를 주었다.

가발 색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 많고 때로는 진한 청색으로 또는 황금색으로 물들이기도 했다. 축제용 가발은 갈라위그(Galawig)라 하며 보석, 진주, 자수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2) 머리장식

이집트의 가발은 점차 복잡해지고 장식화 되어 신왕국 시대에 와서는 그 화려함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의 머리 장식은 상징적인 신분표시나 왕의 위용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 이집트의 부조 및 그림 등을 살펴보면 이시스 여신이나 왕과 그의 부인들은 독수리나, 뱀, 소의 뿔, 태양 등

강력한 왕권이나 풍요와 같은 다양한 의미들을 상징하는 것들로 관을 제작하여 가발 위에 쓰고 있는 것 볼 수 있다.

람세스 2세의 부인, 네페르타리는 <그림 4-6>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머리로 장식된 관(Diadem)을 쓰고 있는데 이 독수리는 상 이집트의 신의 상징으로 상, 하 이집트가 통일된 이후에는 우라에우스⁵³⁾와 함께 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전쟁 중의 왕이 보호받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왕은 신적 존재로 독수리와 같은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다는 과시의 표현으로 장식한 것이다. 뱀의 머리는 독수리와 함께 왕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으로 원래는 하 이집트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관에서는 우라에우스의 머리만을 유리 상감을 입혀 많이 사용했고, 우라에우스의 표피의 무늬는 <그림 4-9>와 같이 왕의 가짜 수염을 만들 때도 이용되었다.

이집트를 통치하는 파라오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두 나라의 통치자였으며, 최고 통치자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로 숭배되었다. 파라오의 왕권은 초인적인 힘에서 비롯한 직위나 특권일 뿐 아니라, 그 초월한 절대적이고 신성한 권위였다. 그렇기에 신성한 왕은 진실, 정의, 평등이라는 여신 마트의 원칙을 따르며 왕국을 지속, 번영시킬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모든 파라오에게는 왕실의 상징물로 박애와 왕실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갈고리와 도리깨, 하 이집트의 적색 왕관과 상 이집트의 백색 왕관을 통합하여 통일된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림 4-9>과 같은 이중 왕관, 그리고 전통적인 두건인 <그림 4-10>와 같은 네메스가 주어졌다.

이러한 모습은 카르나크에서 발견된 람세스 대왕의 아내인 아메스 네페르타리가 도리깨를 들고 있는 19대 왕조 시기의 <그림 4-10>의 조각에서 나타나듯이, 왕실 가족들의 장식으로도 종종 사용되었다.

이시스 여신상을 보면 뱀의 표피 모양의 가발이 양쪽 어깨로 내려오고 그 위에 작은 위에 뿔과 원반으로 장식되어 있다. 머리에 쓴 ‘모디우스’라는 작은 왕관은 코브라 머리들이 고리처럼 엮여진 모양인데, 그 위에 태양

53)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관에 달려있는 코브라 모양의 표장으로 뱀의 여신 ‘우아치트’의 신성한 뱀

의 원반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 4-7>의 빨은 하토르 여신이 이시스 여신에게 선물한 것으로 이시스 여신과 하토르 여신의 공동 상징물이다. 소빨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원반은 태양을 상징하는데 아케나텐 왕이 일륜신인 아톤을 유일신으로 주창한 후 널리 이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장신구에서는 원반으로 풍부히 사용되었고 주로 신성 풍뎡이나 우라에우스(uraeus)와 함께 장식되었다.⁵⁴⁾

이집트의 남성과 여성이 후드와 같이 햇빛 가리개로 쓰던 커치프(kerchief)는 두껍고 뻣뻣한 직물로 만들었고, 가끔 귀족들은 금을 얇게 편 직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마 위에 낮게 쓰고 뒤에서 묶어 양 옆을 피라밋 모양으로 어깨까지 늘어뜨렸다. 일반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사용하였고, 상류계층일수록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하여 사용하였다. 왕이나 여왕이 쓴 커치프는 클라프트(klaft)라 했는데 이것은 <그림 4-9>와 같이 황금색과 청색의 줄무늬가 있는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집트 여성들의 조각상을 보면 머리위에 종종 조그만 원추형 모자를 올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햇살에 녹은 방향제로 채워져 있어서 햇살이 비치면서 향유가 머리카락에 그리고 온몸으로 방울져서 떨어지며 향을 발산하면서 의복을 몸에 밀착시키는 효과도 내어 인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54) 로라포맨 著, 이기문 譯, (1999), 앞의 책, p.82.



< 그림 4-1 >
중왕국 왕자의 관
출처: 『복식의 역사』 p.34



< 그림 4-2 >
투스모 시스3세
왕실여인의 머리장식
출처: 『복식의 역사』 p.44



< 그림 4-3 >
중왕국 때 여인의 가발
출처: www.paralax.com.mx



< 그림 4-4 >
화장하는 여인
『서양복식사』 p.21



< 그림 4-5 >
투탕카멘의 왕좌의 그림
출처: 『서양의복식문화』
백영자 외 p.30



< 그림 4-6 >
람세스2세 부인 네페르타리
출처: www.kr.image.search.yahoo.com



< 그림 4-7 >
이시스
출처 :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80



< 그림 4-8 >
아멘호테프 4세
(카이로이집트 박물관)
출처 : 『이집트 역사 기행』 p.293



< 그림 4-9 >
투탕카멘의 가면
출처 : www.paralax.com.mx



< 그림 4-10 >
네메스와 가발을 쓴 우샤티
(이집트카이로 박물관)
출처 : [www.kr.image.search.
yahoo.com](http://www.kr.image.search.yahoo.com)



< 그림 4-11 >
왕의 관대
출처 : 『서양복식사』 정홍숙 p.8



< 그림 4-12 >
투탕카멘이 쓰고 있는 탐헤드
출처 : 『이집트 역사 100장면』 p.23

3. 복식 및 장신구

1) 이집트 복식의 특징

이집트의 전통적인 복식은 남자는 흰 아마의 단순한 쉐티(shenti)입는 것이며, 여자는 초기에는 직사각형의 형겼을 반으로 접고 양옆을 소매가 되도록 잘라내고 양옆 솔기는 진동 부분만 남기고 단까지 꿰맨 <그림 5-1>과 같은 튜닉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고, 튜닉은 목둘레선은 원형으로 앞 중앙에서 T자로 자르고 다른 형겼으로 목선과 옆 솔기선, 아랫단 등을 장식하였다. 후기에는 <그림 5-2>와 <그림 5-5>의 왕비가 입은 것과 같은 드레이퍼리한 칼라시리스를 즐겨 입었으며, 옷을 감는 방식에는 까다로운 규정 없이 자유롭게 변화를 주면서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드레이퍼리(Drapery)형 이집트의 복식은 그리스를 걸쳐 로마에까지 이와 비슷한 양식의 의상이 전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소재와 형태로 변형되었지만 고대 유럽의 상의 근간을 이루며 서양 복식의 기초가 되었다.⁵⁵⁾

그리스인들의 복식은 가벼운 마포의 유려한 이오니아식 키톤과 두툼고 거친 모직의 도리아식 키톤이 있는데,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재단과 봉제가 필요 없는 단순한 한 조각의 천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도리아식 키톤은 한 장의 천을 접어 그것으로 몸을 감싸 어깨에서 두개의 핀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내려뜨리는 방식으로 입는 것으로 어깨에서 상체에 접어내린 아포티그마(apotygma)와 허리띠로 묶어 약간 블라우징(blousing)되게 한 콜포스(kolpos)부분이 특징이며, 로마의 복식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그리스적인 것의 계승이었다.

이집트의 복식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방적인 형태의 의상을 갖춘 것이다. 이집트는 온난 건조한 기후 때문에 개방적인 형태의 복식을 하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생활은 농경을 주로 한 생활이었으므로 이들을 강하게 지배하는 자연 현상, 천체에 깊은 관

55) 고정원, 「Drape를 통해 본 고대 이집트 복식과 고대 그리스 복식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

심을 가져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고 태양신 외에도 영생 숭배, 동물 토템신앙, 다산신앙 등의 다신교였다. 특히 다산 숭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의 18왕조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의복의 허리 위쪽, 앞의 아랫배를 지나도록 둘러 입어 배가 노출되도록 했는데 배가 나온 것을 미덕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에 종교적 색채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반영되었던 것도 이집트 복식의 특징이다.

둘째, 이집트의 복식은 파라오라는 신성한 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표시의 상징이었는데 넓고 긴 우아한 드레이퍼리형 의복이나 거대한 가발과 머리장식, 신체의 곳곳에 착용한 금속 장신구 등은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나일강의 치수토목공사는 하나의 부락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부락의 협동과 통일을 촉진시켜서 그 결과 일찍부터 통일 국가가 형성되었다. 왕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했으므로 중앙 집중 권력인 전제정치가 발달했다. 국왕은 전제군주인 태양신의 아들이자 국민에게 군림하였으며 제사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로서 행해졌다. 그러므로 국왕은 일반 국민보다는 다른 것을 몸에 지녀 국왕임과 신임을 표시해야 되었기 때문에 복식은 자연히 신의 상징인 형태를 표시하는 장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갔다. 이러한 신의 상징적인 복식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왕을 높이 존경하게 하는 표시였다. 국왕뿐 아니라 전제 정치 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단계의 신분계급은 모두 이러한 복식으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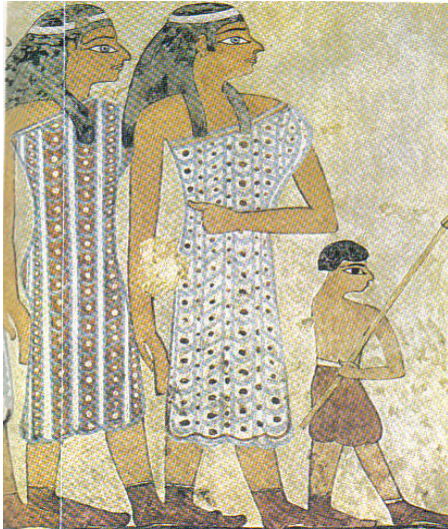
복식의 중요한 재료는 린넨(Linen)으로 고왕국 시대에는 린넨의 자연적인 흰색이 신성시 되어 많이 입었고, 그 밖에 빛나는 금색, 은색, 검은 계통의 색도 입었다. 상류층은 그 당시 동인도에서 만들어진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일강가에서 자란 아마(亞麻)로 짜여진 곱고 투명한 머슬린(Muslin)을 입었다.

남자의 기본적인 옷은 <그림 5-6>와 같은 로인 클로스(loin cloth)로서 허리에 두르는 단순한 형식인데 거들이나 벨트로 맨 것이다. 시대나 신분에 따라 그 길이나 감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것은 단

순히 옆으로 감은 것이었고, 왕의 것은 주름을 많이 잡았고, 앞에는 태양과 같은 색으로 간주하여 가장 고귀한 것을 상징했던 금으로 만든 장식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고관들은 앞에 주름은 잡은 에이프런을 덧입었다. 이것을 트라이앵글라 에이프런(Triangular apron)이라하며,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름이 밑에서 벨트 쪽을 향해 방사선으로 잡혀 있었다. 그리고 왕은 뱀 모양의 유리어스를 머리와 거들 양쪽에 달아 권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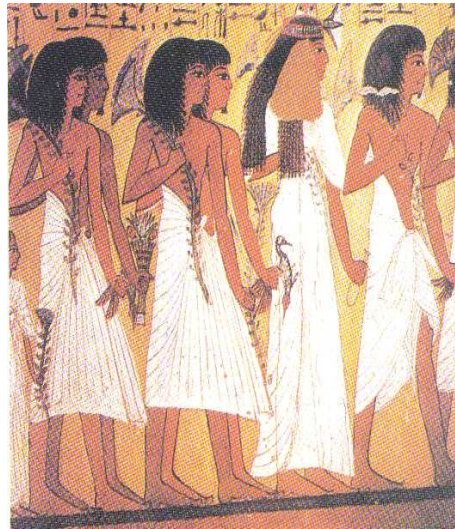
여자는 <그림 5-3>와 같은 통이 좁으며 치마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간단한 형태의 쉬이스 가운(sheath gown)을 입었다. 신 왕국시대에는 칼라시리스(Kalasiris)를 상류계급에서 입었는데 가는 주름을 많이 잡아 드레이프(Drape)⁵⁶⁾된 형태의 옷으로 남녀가 같이 입었다. <그림 5-4>과 같이 칼라시리스보다 드레이핑이 더 복잡하고 유동적인 숄(Shawl)을 걸쳤는데 하이크(Haik)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또한 사제(Priest)는 표범 가죽을 어깨에 걸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노예계급은 거의 나체이거나 간단한 로인 크로스로 한정되었다.

56) 복식 사전상의 의미 : 천으로 가리거나 천을 걸치거나 주름을 잡는 일, 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의복을 디자인 하는 복식기법을 말하며, 주로 부인복의 부드러움이나 우아함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 고정원, 앞의 논문 -용어 연구 >



< 그림 5-1 >

동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왕국 시대 튜닉
출처 : 『서양복식 문화사』 정홍숙, p.19



< 그림 5-2 >

kalasiris 와 kilt skirt
출처 : 『서양복식 문화사』 정홍숙, p.20



< 그림 5-3 >

sheath skirt를 입은 두 여인
출처 : 『서양복식 문화사』 정홍숙, p.17



< 그림 5-4 >

Amenhotep 1세가 입은 haik와
고증에 따라 재현된 haik
출처 : 『서양복식 문화사』 정홍숙, p.18

2) 신발 및 장신구

고왕국 시대는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에는 궁내관이 왕의 신발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것은 왕이 신성한 땅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신을 신지 않고, 중왕국 시대에 이르러 서야 남녀 구별 없는 지극히 간단한 형태의 샌달(sandal)을 사용하였다. 샌달은 상류층에서만 사용하였고, 하류층에서는 여전히 맨발이었으며, 상류층에서도 실내에서는 맨발이었다.

왕국시대가 되면서 이집트인들의 샌달은 일반화되었으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장식적으로 되었다. 염소 가죽을 이용 염색한 가죽에 보석을 장식하거나 종려나무로 만들어 신기도 했으며, 형태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고 사체는 파피루스로 만든 샌달을 신었다. 그 모양은 앞부분이 둥근 것과 뾰족하여 그 끝이 위로 올라 간 것 등이 있는 후자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이 착용하였다.⁵⁷⁾

매우 단순했던 이집트의 의복과는 대조적으로 육체를 강조하는 화려함이 이집트 장신구의 특징이며 일찍부터 귀금속 세공, 보석, 칠보세공이 발달하여 자연적인 많은 재료를 비교적 간단히 가공해서 보기 좋은 장식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장신구들은 착용자의 지위와 권력을 내어 왕과 왕비는 신을 상징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답고 권위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집트인들은 둥글게 뭉쳐진 금속으로 금사를 만들어 자수예술했을 발달시키기도 했다. ⁵⁸⁾

이집트 왕조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했던 장신구는 <그림 5-8>과 같은 어깨와 가슴을 덮는 커다란 목걸이인 파시움(passium)이었다. 이것은 금줄에다 삼각형이나 원형, 타원형으로 깎은 에메랄드, 자수정, 홍옥 등 다채로운 색상의 보석과 유리, 도기 등을 여러 형태로 연결시켜 전체가 독수리 모양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것을 앞에서 늘어뜨리고 돌려 뒤에서 고정시켰다. 이집트의 또 하나 특징적인 액세서리는 가슴장식(Pectoral)이다. 일반적인 것은 장방형의 금을 투각시킨 대형 브로우치에 보석이나 광택자기를 박아 장식한 체인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늘어뜨려 착용한다. 이 장식의

57) 백영자 외 1인, 앞의 책, p.p.29~36.

58) 박일록, 앞의 책, p.72.

디자인은 미신적인 것으로 제한되어, 항상 착용하고 있으면 재앙이나 저주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가진 수호물이다.

이 외에도 <그림 4-10>와 같이 이집트의 왕이나 여왕들의 조각들에서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와 도리깨를 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팡이(헤카, 왕홀)는 왕국의 지도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통치의 상징이고 도리깨(네페카)는 풍작을 기원하는 것으로 농업이 주산업인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주된 관심 대상이 풍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에게 권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2>과 같은 반지는 갑충과 형성문자를 새긴 인장반지(signet Ring)로 문서 등에 서명을 할 때 사용되었으며, 가느다란 금실을 꼬아 만든 반지도 있었다. 팔찌는 찰 수 있는 것과 팔목에 꼭 맞게 만든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집트인 특유의 예술 감각과 종교적 감성이 들어있는 무늬를 새겼으며 컬러풀한 보석도 사용하였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길게 늘어뜨린 귀고리는 여러 색의 보석이나 구슬들을 넣어 어깨와 머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커다란 루프 형태의 귀고리는 펜던트 형으로 독특한 것이다.

이집트인의 독창적인 장식성은 인공적 텍수염에서 잘 나타난다. 그들은 수염을 깎았는데 왕과 왕비의 왕족은 권위의 상징으로 인조수염을 달아 위엄을 나타냈고, 이는 고왕조 시대는 비교적 짧고 단순하나, 신왕조에 들어오면서 매우 길고 기교적인 모양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뱀의 표피를 모방한 것이다.

이외에도 뜨거운 태양광선을 막고 뜨거운 지방의 곤충을 쫓는다는 의미와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깃털 부채나 우산형 부채가 있어 노예들로 하여금 들고 따라다니게 하였으며 여성들은 화장을 중요시 여겼으므로 화장에 필요한 <그림 5-14>과 같은 손거울은 필수품이었다. 이외 기능적이기 보다는 장식적으로 이용된 단추, 기하학적인 모형의 로터스⁵⁹⁾나 파피루스⁶⁰⁾를

59) 하 이집트의 대표적인 식물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식물 문양의 기본을 이루어 장신구뿐 아니라 그릇, 벽화, 건축양식에 많이 사용되었다.

60) 상 이집트의 대표적인 식물로 로터스와 함께 장식되는 경우가 많다. 파피루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 어원은 ‘파 페르 아’, 즉 ‘왕가의 물건’이라는 고대 이집

도안화한 레이스 장식, 프린지(Fringe), 리본 등이 있었다. 투탄카멘의 재정 담당관이며, 파라오를 매장하는 영예로운 일을 수행하던 마야의 무덤에서는 유리알에 금도금을 한 것으로 작은 진주를 두 겹으로 엮은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 목걸이와 철화석고 알 사이마다 색깔이 있는 동그란 진주들이 한 알씩 끼워있는 목걸이, 그리고 약간 짧은 것으로 둥근 알들이 꿰어져 있으며 알 사이마다 둥근 진주가 섞여 있는 목걸이 세 줄이 엉켜져 있는 형태도 있었다. 마야의 무덤에서 발견된 미라의 오른팔에는 팔지 두개가 끼워져 있었는데, 하나는 에나멜 반죽으로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색깔이 있는 동그란 진주로 만들었으며, 왼쪽과 오른쪽 발가락에는 가락지가 두 개 끼워 있었다. 또한 코나 귀를 장식하는 장신구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⁶¹⁾



트어였다. 영어로 종이를 ‘페이퍼’ 라고 하는데 이페이퍼라는 마도 기원을 따지자면 그리스어의 파피루스에서 파생된 것이다.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 기행, p225)

61) 장베르쿠테 著, 송숙자 譯, (1995), 『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 』, 시공 디스커버리, p.189.



< 그림 5-7 >
클레오파트라 의 장신구
출처 : [www.kr.image.search.
yahoo.com](http://www.kr.image.search.yahoo.com)



< 그림 5-8 >
독수리와 뱀 모양의 목걸이
출처 : 『서양복식 문화사』
정홍숙 p.13



< 그림 5-9 >
호루스 눈모양의 목걸이
출처 : 『서양복식문화사』
정홍숙 p.13



< 그림 5-10 >
클레오파트라 의 장신구
출처 :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69



< 그림 5-11 >
신성풍뎡이 모양의 반지
출처 : 『서양복식 문화사』
정홍숙. p.11



< 그림 5-12 >
옥수로 각하여 만든 반지
출처 :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237



< 그림 5-13 >
상아와 흑단으로 만든 머리핀
출처 :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p.236



< 그림 5-14 >
나무에 도금하여
홍옥으로 장식된 거울
출처 : 『서양복식문화사』 정홍숙,
p.14

제 3장 영화 작품 속에서의 클레오파트라

제 1절 1946년 작품 비비안 리(Vivien leigh) 주연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Caesar And Cleopatra)’

1. 작품 개요

영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가 1898년에 쓴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희곡을 영화한 작품으로 1945년 가브리엘 파스칼(Gabriel Pascal)이 영국에서 제작하였다. 이 영화는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추격해 이집트에 상륙한 후 로마를 향해 떠날 때까지 있었던 일들이 펼쳐지며,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은 비비안 리에게 아카데미와 뉴욕 비평가 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 또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트라’에 앞서 작품 제작 전에 세워두었던 예산보다 두 배나 되는 1백 25만 파운드를 쓰게 됨으로 해서 아더뱅크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였다.

이 작품의 감독인 가브리엘 파스칼(Gabriel Pascal)은(1884~1954) 출생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루마니아 배우 출신의 제작자 겸 감독이다. 가브리엘 파스칼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다가 1930년대 영국으로 건너가 버나드 쇼의 희곡들에 대한 영화 제작권을 확보하여 캐더린 헵번을 주연으로 ‘잔다르크(Saint Joan)’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의 작품을 만들었으며, 버나드 쇼는 그를 디아길레프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했지만,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실패 이후 파스칼의 몰락기가 시작되었다.⁶²⁾

이 영화의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은 비비안 리(Vivien leigh)의 본명은 비

62) 안정효, (2002), 『신화와 역사의 건넌목』, 서울 들녘, p.73.

비안 메리 하트리(Vivian Mary Hartley)로 1913년 11월 5일 인도의 다르질링에서 출생하였다. 비비안 리<그림 6-1>는 5세 때 영국으로 귀국한 후, 파리에서 연극을 배우고 런던 왕립 연극 학교에서 연기공부를 하였다. 1934년 여학생 역으로 영화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무대와 영·미 영화에 출연하였다. 비비안 리(Vivien leigh)가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클레오파트라의 역을 맡을 당시 32살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부지인 어린 여왕의 캐릭터로 그려진 클레오파트라의 역 캐스팅 되었다. 그것은 비비안 리가 160cm의 그다지 크지 않은 키에 몸무게가 47kg정도로 체구가 작았고, 하얀 피부와 검은 색깔의 머리, 그리고 술이 많고 진한 속눈썹, 초록의 눈동자 등 비비안 리 얼굴과 신체적 특징들이 만들어 내는 여리면서도 강한 이미지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6-1>
비비안 리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시나리오의 줄거리는 시저가 폼페이우스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상륙한 후 사막에서 우연히 쫓겨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상상하는 무서운 로마군과 시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라기보다는 철이 없고, 겁 많은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시저는 그런 클레오파트라를 여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여왕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여왕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도와준다.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왕권의 다툼으로부터 이집트의 안정을 찾아주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찾아 주었던 젊고 씩씩한 멋진 군인으로 기억되는 마크 안토니를 보낼 것을 약속하며 로마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시저를 종래의 낭만적인 영웅이 아니라 냉철하고 타산적인 현실주의자로 그렸으며 뿐만 아니라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를 통치했던 현명하고, 원숙한 미녀가 아니라 무지하고 순진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소녀였으며, 이런 미약한 존재인 클레오파트라가 강력한 여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 것도 로마의 시저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는 관점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있다.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1) 메이크업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은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만나기전 철부지의 어린 여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림 6-2>의 메이크업과 시저를 만나 후 점차 여왕의 모습을 갖추가는 강한 이미지를 주는 <그림 6-3>의 메이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 영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상황에 따른 메이크업 형태나 색상의 큰 변화가 없다. 작품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작 당시인 1940년대의 메이크업 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맥스 팩터(Max Factor)에 의해 영화의 분장용으로 완벽하게 피부를 커버해 주는 펜 케이크(pancake)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피부 톤을 만든 뒤 파우더로 덮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눈 화장과 풍만하고 진하게 강조된 입술이 초점이 되는 1940년대의 메이크업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피부

피부는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어두운 피부와는 달리 1940년대 제작 당시 유행하던 메이크업 패턴과 마찬가지로 밝은 색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있으며, 밝게 표현된 피부에 립 색상을 제외한 다른 색상은 최대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 눈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아이섀도우에 어떠한 칼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역사 자료에서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아이라인만을 이용하여 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6-2>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사막에서 시저를 만

나는 장면에서의 메이크업으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진하고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어린 여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눈썹의 색상은 어두운 브라운 계열로 진하게 표현을 하고 형태는 가늘고 길게 그려진 표준형 눈썹에 가깝다.

아이라인은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호루스의 눈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눈을 강조하기 위해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속눈썹 라인 전체를 그려주고 있으며, 형태는 눈 앞머리는 내어 그리고 눈 꼬리 부분은 길게 뒤로 빼 언더라인과 연결하여 긴 눈매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언더라인이 거의 수평의 형태로 그려지고 아이라인이 선명한 선의 느낌보다는 펜슬로 그려서 그라데이션 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어 눈이 강조되긴 하였으나 여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림 6-3>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6-3>은 점점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면서 당당한 여왕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클레오파트라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의 끝까지 계속되는 메이크업이다. 나약한 모습에서 강한 모습으로 변한 강인한 캐릭터의 모습을 담기 위해 <그림 6-2>에 비교하여 라인과 색상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있지만 메이크업의 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단지 차이점은 눈썹은 검정색을 이용하여 진하게 그리고 형태는 눈썹 산에 각을 만들어 눈썹 앞머리보다 눈썹 꼬리가 높게 하여 상승시켜 길게 그려주었으며, 아이라인은 <그림 6-2>와 비교하여 선명하고 강하게 표현하고 눈 꼬리를 상승시켜 그린 정도이다.

(3) 립

립은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에서 유일하게 색상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진한 빨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색상은 강인한 여왕으로 성장해 가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나타내기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유행했던 색상이기도 하다. 이 빨강색은 하얗게 표현된 베이스 위에 칼라가 배제된 진한 눈 화장과 함께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피부를 더욱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눈과 입술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어리면서도 강한 여성

의 느낌을 더욱 강하게 표출해내고 있다.

영화 속에서 잠자는 장면이나, 천방지축의 어린 소녀의 클레오파트라를 표현하는 장면에서도 립의 색상이 입술 색깔에 가까운 붉은 색이 약하게 표현 될 뿐 전체적인 색상의 큰 변화는 없다.

2) 헤어스타일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는 곱슬거리는 긴 머리에 짧은 앞머리의 헤어스타일을 기본으로 가발과 왕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과, 왕관, 장식품, 가발 등에서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6>는 클레오파트라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앞머리에 나선형의 금속에 머리를 감고 있다. 이는 그리스인이 머리에 켜거나 웨이브를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머리카락을 웨이브나 켜를 주기 위해 카라미스드람(Calamistylam)이라는 2개의 가는 금속파이프를 이용하였고, 가느다란 쪽 금속의 파이프를 뜨거운 화로 속에 넣고 달군 후, 굵은 파이프 속에 넣은 것이다. 짧은 머리는 단지 카라미스드람에 감았으며, 그리스의 무덤에서 금, 은, 청동의 나선형 기구가 자주 발견되곤 한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헤어스타일이 <그림 6-4>의 형태이다.⁶³⁾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주로 <그림 6-4>과 같은 기본 헤어스타일에 때와 장소에 따라 가발이나, 관을 이용하여 장식을 하거나, <그림 6-5>, <그림 6-10>에서와 같이 이집트에서 목이나 어깨 등 부분에 굵은 실 다발이나 머리를 늘어뜨리고 땅기도 했던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여인을 이집트의 부조<그림 4-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6-10>의 복식은 <그림 6-17>의 형태로 머리장식에 사용된 금장식을 이용하여 장식하였으며 그 형태는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 재현하였다고보다는 1940년대 초에 상의 앞트임에 끈을 묶어 여뒀던 유행 패턴⁶⁴⁾이 영화 속 의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처럼 손질된 머리를

63) 히데오 아오기 著, 유태순 외 2인 譯, 앞의 책, p.32.

64) 현대패션 100년 편찬 위원회, (2002),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p.147.

정교하게 세공한 금으로 엮어 놓았다는 자료들도 있다.⁶⁵⁾ <그림6-5>와 <그림6-10>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그림 6-11>은 이시스 여신상에서 볼 수 있는 머리의 형태로 이집트에서는 가발을 우라에우스의 피부를 닮은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한 <그림 4-3>, <그림 4-6>과 같은 유물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가발위에 <그림 4-6>과 같은 왕을 상징하는 12마리의 뱀의 머리로 장식된 왕관을 씌으로써 시저의 도움으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그림 6-7>, <그림 6-8>과 <그림 6-9>는 머리 가운데로 가르마를 하고 어깨 부분에서 수평으로 커트하여 보석이나 금속제로 장식한 가발에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쓴 것이다. <그림 6-7>은 람세스 부인의 부조인<그림 4-6>에서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왕관은 독수리 머리, 독수리 날개로 꾸며졌으며, 가발은 진한 청록색의 원추형의 금속 재료를 엮어서 뱀의 피부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6-8>에서는 태양의 색이라 여겼던 금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추 형태의 금빛의 금속제로 가발을 장식하여 그 위에 왕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있으며, 이는 <그림 6-11>에서 쓰고 있는 왕관의 형태와도 유사하다.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관 이외에도 왕가의 대표적인 장신구인 어깨와 가슴을 덮는 커다란 금빛의 파시움을 이용하기도 하고 복식에서도 왕권을 상징하던 쉐도트와 같은 앞 장식판을 스커트 길이까지 길게 이용하고 있다.

<그림 6-9>은 <그림 4-1>과 같이 머리를 가늘게 여러 가닥으로 뿜아서 머리 끝 부분에 금속 장식을 한 형태로 이는 이집트 유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헤어스타일이다.

이 작품에서는 클레오파트라의 의상을 <그림 6-13>과 같이 이집트 복식에서 핀턱(pin tuck)을 이용해 인위적인 주름을 만들어 몸이 천이 닿는 면적을 줄임으로써 더 시원하게 느끼게 했던⁶⁶⁾ 자료를 근거로 이집트의 의상

65) Blanche Paync 著, 이종남 외 3인 譯, (1988), 『복식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 까지』, 도서출판 까치, p.84.

을 재현하기도 하였으며 이집트 의상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주름과 정교한 아름다운 선의 특징만을 의상에 살려 넣기도 하거나 당시 유행하던 디자인이 함께 응용되기도 하였다.

66) 고정원, (2002), 앞의 논문, p.49.



< 그림 6-2 >
어린 철부지 이미지의 메이크업



< 그림 6-3 >
여왕의 모습을 갖추기는 클레오파트라



< 그림 6-4 >
웨이브를 준 그리스 여인의



< 그림 6-5 >
어깨 양쪽으로 굽게 땀아 내린 머리형태



< 그림 6-6 >
카라미스트람을 이용한 웨이브 연출



< 그림 6-7 >
독수리의 날개로 장식된 왕관

-출처 : DVD 'caesar and cleopatra' (주)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 그림 6-8 >
금속으로 장식한 가발과 뱀머리
장식의 왕관과 파시움



< 그림 6-9 >
가늘게 뿔은 머리 가발에 머리
끝 부분에 금속으로 장식한
노프렛의 형태



< 그림 6-10 >
굵게 뿔은 머리에 금으로 장식한
헤어스타일



< 그림 6-11 >
우라에우스의 피부를 닮은
가발의 형태와 뱀머리로 장식한
왕관

- 출처 : DVD ‘caesar and cleopatra’ (주)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 그림 6-12 >
넓은 천을 이용하여
머리를 둘러쓰던 로마의
복식형태



< 그림 6-13 >
인위적인 주름의
스커트와 웬도트 장식



< 그림 6-14 >
쉬즈 스커트형태의 복식과
웬도트 장식



< 그림 6-15 >
튜닉형태의 복식



< 그림 6-16 >
칼라시리스의 복식형태



< 그림 6-17 >
1940년대 줄을 이용한
앞 여밈 형태의 복식

-출처 : DVD 'caesar and cleopatra'(주)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제 2절 1953년 작품 소피아 로렌(Sophia Loren)의 ‘클레오파트라의 이틀 밤(Due notti con cleopatra)’

1. 작품 개요

이 작품은 1953년 이탈리아의 마리오 마톨리(Mario Mattoli) 감독에 의해서 제작된 이탈리아의 고전적인 익살극으로 요염한 클레오파트라 역으로 소피아 로렌을 등장시켰다. 감독 마리오 마톨리는 1934년 'Full speed'를 시작으로 1942년 'the three pilots', 1952년 'the lucky five' 등 1960년대 후반까지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다.

주연을 맡은 소피아 로렌<그림 7-1>은 1934년 9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사생아로 태어난 소피아 로렌은 지방 미인 대회에서 수상을 하여 로마에서 모델 겸 단역 영화배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데뷔작으로 1950년 머빈 르로이 감독의 ‘퀴바디스’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되었다. 소피아 로렌은 1950년대 말부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해서 여자의 슬픔과 괴로움을 온몸으로 연기하는 국제적인 이탈리아의 여배우가 되었다. 소피아 로렌은 1959년의 ‘흑란’으로 베니스 영화제 최우수 여우상을 수상하고, 1961년의 ‘두 여인’으로 아카데미상과 칸영화제 여우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소피아 로렌은 처음에는 균형 잡힌 몸매로 주목을 받고 세속적인 역으로 특히 유명하였으나 이 후 다양한 영화를 통해 정서적 깊이를 지닌 재능 있는 여배우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소피아 로렌은 1953년 ‘클레오파트라의 이틀 밤(Due notti con cleopatra)’에 클레오파트라 역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제작당시 19살이었지만 큰 이목구비와 174cm의 큰 키, 균형 잡힌 몸의 섹시한 이미지는 요부로서의 클레



< 그림 7-1 >
소피아 로렌

오파트라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의 주연으로 충분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시종이 술집에서 우연히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닮은 여자를 발견하고 안토니우스를 만나러 가기위해 자신의 방을 여왕을 닮은 여자에게 지키도록 하는데, 평소 여왕의 모습을 궁금해 하던 병사가 여왕의 침실에 들어가게 되고 침실에 들어간 그 병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해준다. 다음 날 클레오파트라가 돌아오고 여왕을 닮은 여인은 감옥으로 가게 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병사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아는 척을 하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병사를 안토니우스가 보낸 반역자로 착각하게 되어 그 자를 처형하기로 한다. 처형하기 전에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에 빠진 클레오파트라는 병사의 꾀에 술 취하게 되고 그 틈을 타 병사와 여왕을 닮은 여인은 탈출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특징은 시저가 죽고 난 후 시저를 대신하여 클레오파트라 자신과 세계 정복의 꿈을 함께할 계략으로 안토니우스를 로마에서 떠나게 한 후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알렉산드리아의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많은 지식과 함께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클레오파트라가 아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위해 궁 병사 중 한명이 여왕이 잠을 청하도록 돕게 하고, 다음날 아침 이들이 나가 밖에 퍼지게 될 소문을 걱정하여 그 병사를 다음날 아침 독살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거만하고 차가운 요부의 이미지가 강한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1) 메이크업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은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메이크업을 재현하였다기보다는 밝은 톤의 붉은 색의 입술과 펜슬을 이용한 인위적인 눈썹, 길고 강한 아이라인 등이 특징인 제작당시인 1950년대의 메이크

업 경향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클레오파트라는 요부로써의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여성스러우면서도 차갑고 냉철한 여성으로 재현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피부

영화를 제작할 당시 1953년에는 오드리 햅번의 메이크업 패턴이 유행하여 복숭아 빛 화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어두운 색상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클레오파트라의 역사적 자료와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 또한 요부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는 어두운 색상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2) 눈

1950년대 초의 아이메이크업의 경향은 아이라인을 길게 그려서 눈을 크게 강조하고 눈썹은 아이펜슬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형태로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는 이러한 메이크업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눈썹은 아이라인이 길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눈썹 산 부분이 뒤로 밀려나면서 길게 표현이 되었다. 눈썹의 모양은 각이 진 형태로 눈썹의 앞머리보다 꼬리가 올라가 있어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눈썹의 색상은 <그림 7-2>와 같이 다크 브라운 계열로 진하게 표현이 되었다.

눈의 아이라인은 검정색을 이용하여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꼬리까지 상승된 형태로 아이라인이 눈썹에 거의 닿을 정도로 길게 그려주었으며, 언더라인이 눈 꼬리 부분에서 만나 같이 상승되는 형태이다. 눈 앞머리 부분은 앞으로 살짝 내어서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눈 꼬리의 상승되는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아이새도우는 역사적 자료에서 클레오파트라가 공작석이나 터키석을 이용하여 푸른색과 초록색을 눈가에 바른 것처럼 유사한 방법으로 아이새도우를 하진 않았지만 같은 색상의 계열인 블루 컬러를 이용하여 아이라인 선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하였다.

그라데이션은 눈두덩이 전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상승되어 그려진 눈 꼬리 라인부분을 따라 극히 제한된 범위에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인조 속눈썹은 1950년대의 메이크업 경향과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사용하였고 특히 눈 꼬리 부분이 강조 될 수 있도록 눈 꼬리 부분이 긴 속눈썹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된 눈은 강한 여성적 매력을 풍기면서도 냉철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3) 립

립은 1950년 당시 마를린 먼로와 같은 섹시한 입술을 만들기 위해 유행하던 방법으로 소피아 로렌의 입술보다 크게 곡선 형태의 아웃커브로 그려주었다. 색상은 큰 변화 없이 내추럴 오렌지 계열의 색상을 이용하고 있지만 때때로 색상의 강약을 달리하기도 하고 일부 장면에서는 립글로스를 처리하여 번들거리는 느낌도 주었다.

2) 헤어스타일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일은 짧은 앞머리가 있는 웨이브진 검정색의 긴 머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앞머리의 라인이 일자의 형태가 아니고, 미간을 중심으로 양쪽 눈썹의 상승 방향과 평행하게 <그림 7-3>과 같이 V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 헤어 라인 또한 작품 중에 클레오파트라의 요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림 7-5>와 같이 앞머리를 웨이브를 만들어 일정하게 배열 형태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얼굴근처의 머리를 나선형으로 곱슬거리게 했던 형태⁶⁷⁾와 유사하다. 그리스 여인들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빗어 넘겨 목 뒤에서 묶거나 인위적인 컬을 만들었고 머리를 틀어 올려 전체적인 모양이 뒤로 향한 원추형의 타래 머리형태 였다는⁶⁸⁾ 자료와 같이 <그림 7-5>은 윗머리를 뒤로 넘겨 묶어서 땀아 내렸고, <그림 7-7>는 인위적인 컬이 있는 가발을 이용하여 머리를 장식하였으며, <그림 7-6>은 원추형의 올린 머리의 형태를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림 7-6>은 그리스 후기의 여성들이 머리를 뒤로 틀어 올려서 그물이라 리본으로 묶고 머리핀을 꽂은 형태를 변형하여 묘사하였거

67) 정홍숙, 앞의 책, p.81.

68) 정홍숙, 위의 책, p.69.

나 에트루리아의 부유하고 지위가 있던 여성들이 무늬가 있는 헤어 망으로 뒤에서 고정시키고 금색 나뭇잎의 보관으로 장식했다는⁶⁹⁾ 자료에서 출발한 형태로 보여 진다. <그림 7-9>과 <그림 7-10>는 전형적인 이집트의 가발 형태로 단발의 가발에 보석이나, 유리, 기타 장식물들을 가발과 같이 엮은 형태이다. 그리고 이 가발 위에 왕관을 상징하고 있는 뱀의 머리카, 독수리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장식된 왕관을 쓴 모습이다. <그림 7-4>는 가늘게 뿔어진 푸른색의 가발을 두상을 돌아가면서 여러 층으로 감아 놓은 형태로 이집트의 왕인 투탕카멘과 왕비가 짧은 푸른색 커트형의 머리를 하고 그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담긴 <그림 4-5>에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클레오파트라 의상은 이집트의 쉬스 스커트나, 칼라시리스, 튜닉의 디자인이 재현되었는데, 이 또한 전통 방식에 의한 것보다는 몸에 딱 맞는 기본 의상에 겹으로 보았을 때의 드러나는 이집트 의상 각각의 독특한 라인만을 더해 놓은 형태이며, <그림 7-13>, <그림 7-14>과 <그림 7-16>은 이집트 튜닉의 형태로 복식의 재료인 흰색의 린넨과 곱고 투명한 머슬린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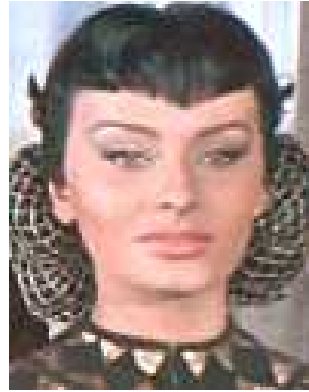
<그림 7-10>에서 통치의 상징인 지팡이는 다른 작품에서 제작되어 사용한 둥글게 구부러진 모양의 지팡이와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지팡이는 검은 늑대의 모습이나 어깨 위에 황금빛이 나는 이리와 같은 모습, 또는 개의 머리를 얹은 거무스름한 피부의 사나이로 표현되는 죽음의 인도자인 아누비스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⁷⁰⁾

69) 블랑쉬페인 著, 이종남 외 3인 譯, 앞의 책, p.115.

70) 구나정, (2003) 「이집트 신화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논문, P.36.



< 그림 7-2 >
요부 이미지의 메이크업



< 그림 7-3 >
V자 형태의 앞머리 라인



< 그림 7-4 >
터번 형태의 푸른색 가발



< 그림 7-5 >
나란히 정렬된 웨이브 진 앞머리



< 그림 7-6 >
망과 금속장식물로 장식



< 그림 7-7 >
인위적으로 만든 웨이브로 장식



< 그림 7-8 >
쪽머리 형태의 업스타일



< 그림 7-9 >
깃털로 장식된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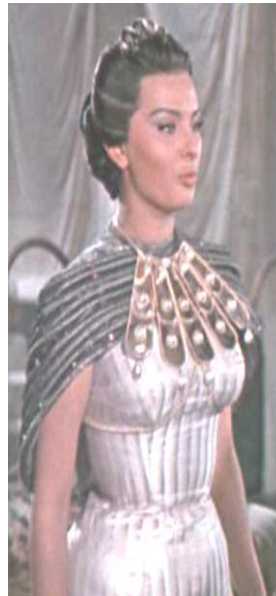


< 그림 7-10 >
왕권을 상징하는 장신구

-출처 : DVD 'Cleopatra'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 그림 7-11 >
쉬스스커트의 형태



< 그림 7-12 >
칼라시리스의 상의에
나타나는 주름을 표현



< 그림 7-13 >
튜닉의 형태에 밑단과 소매
끝을 장식



< 그림 7-14 >
투명한 천을 이용한 의상



< 그림 7-15 >
칼라시리스의 하의에
나타나는 주름을 표현한 의상



< 그림 7-16 >
튜닉의 형태의 의상

-출처 : DVD 'Cleopatra'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제 3절 1963년 작품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Taylor)의 ‘클레오파트라(Cleopatra)’

1. 작품 개요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1963년 조셉 맨키 에비츠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주연을 맡았다. 조셉 맨키 에비츠 감독은 시나리오 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베를린에서도 공부를 하였다. 1928년 파라마운트사를 거쳐 MGM사로 자리를 옮겨서 독일에서 온 프리츠 랑 감독의 작품을 프로듀싱 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대 뒤의 추악한 거래를 그린 ‘이브의 모든 것(All about Eve - 1950년)’을 통해 조셉 맨키 에비츠 감독은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된다. 1949년 작품인 ‘세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To Three Wives)’에 이어 두 번째로 감독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는 기염을 토해내었다. 그리하여 에비츠 감독은 대작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줄리어스 시저 (Julius Caesar - 1953)’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고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클레오파트라(Cleopatra - 1963)’는 당시 영화사상 최고의 제작비를 투자한 대작이었다. 그러나 작품은 영화사상 최악이었다. 3100만 달러의 제작비와 3년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된 이 작품은 제작자와 감독, 작가는 물론 20세기 폭스사를 거의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입장 수입이 4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이 작품의 참패는 이후 스펙 타클한 서사극의 퇴조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에비츠 감독의 전성기는 할리우드 1950년대였고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독특한 서사 구조는 이 후 할리우드 영화의 한 전형이 되었다.

주연을 맡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림 8-1>는 1932년생으로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 31세의 162cm 정도의 자그마한 체구였다. 당대 최고의 남자들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미국 최고의 미녀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현

대에서도 종종 클레오파트라에 비유된다. 이러한 것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직접, 간접적으로 다룬 영화들 중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클레오파트라가 같은 소재의 영화 중 최고작으로 꼽히는 후광 효과 내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얼굴은 피부가 하얗고 이에 상대적으로 진하고 술이 많은 눈썹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이 여성스러우면서도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여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 그림 8-1 >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 영화의 줄거리는 역사의 자료가 보여주는 대로 치열한 권력 싸움 끝에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20여 년간 이집트를 로마로부터 지켜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시저와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그린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 이집트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의 힘이 필요하였기에 이를 목적으로 시저의 숙소에 몰래 잠입하여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와 도도한 매력으로 시저와 결혼식을 올린다. 시저의 힘을 이용하여 세계를 통치하고 싶은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로마의 왕이 되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원로원의 반대세력에 밀려 시저가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시저를 잃은 슬픔보다 이집트와 자신을 로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안토니우스를 찾는 냉철함을 보인다. 안타깝게도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집트를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유일한 방법이긴 하였으나 충분하진 못했다. 이후,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는 로마의 1/3에 가까운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와 안토니우스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된다. 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안토니우스는 좌절을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안토니우스를 지키기 위해 이집트를 버리고, 안토니우스와 나란히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유언하며 자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 작품은 역사속의 세 인물인 클레오파트라, 시저, 안토니우스 중 어느 한 인물과의 관계나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통상적인 요부의 이미지를 다루는 것을 벗어나서 ‘클레오파트라’라는 한 통치자가 여왕에 오르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화려하고 풍부한 소품과 의상, 메이크업, 영화 세트 등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클레오파트라를 성별을 떠난 훌륭한 통치자이면서 자식의安危를 걱정하고 한 남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여인인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였던 화려한 여왕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1. 메이크업

이 작품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은 비교적 고증 자료에 의한 재현에 가깝다고 보여지지만, 1960년대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유행함으로써 영화의 침실장면에서도 다소 강한 아이라인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1) 피부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자료의 클레오파트라의 어두운 피부 표현을 위하여 페이스 라인에 어두운 색상을 사용하고 이와 함께 사선 방향으로 오렌지 계열이나 살구색 계열의 치크를 하여 혈색을 부여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배우의 밝은 피부 톤을 보완해주고 있다.

2) 눈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는 눈썹은 진하고 두꺼우며, 관자놀이 까지 길게 뻗은 형태이다. 눈매를 강조하고 길게 뻗 아이라인은 눈썹과 만날 정도까지이며, 그 아이라인의 형태는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루 던 장면인 <그림 8-2>와 여왕으로서 집무를 보는 장면인 <그림 8-3>, <그림 8-4>에서와 같이 눈을 물고기의 형태와 흡사하게 물고기 꼬리모양의 삼각형이나 두 갈래로 갈라진 모양으로 표현하거나 일자형으로 두껍고 길게 뻗 <그림 3-1>와 같은 호루스의 눈 형태

로 검게 눈 가장 자리를 강조하였다. 삼각형의 형태는 의상이나 피라미드
에서와 같이 이집트의 생활에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로 풍요로운 나일강의
평야를 뜻하는 것으로 눈의 삼각형의 모양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실내에서 혼자 쉬던 모습이나 침실장면 등 장소에 따라 때때로
강하지 않은 아이새도와 아이라인을 길게 빼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다.

고대에 공작석을 이용하여 발랐던 아이새도는 아이라인 위쪽으로 시작해
서 눈썹 부위까지 가득 채워 펴 바르고 그 색상은 의상에 맞게 초록색과
푸른색을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장면에 따라 화사함을 더하기 위하여 필을
사용하기도하였다. 속눈썹은 당시 인조 속눈썹을 이중사중으로 사용하던
메이크업 유행 패턴처럼 진하고 풍성하게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표현 방식
은 아이라인을 강조한 메이크업과 조화를 잘 이룬다.

다양한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강조하게 된 이집트 메이크업의 형태
는 1960년대에 눈꺼풀에 두꺼운 선을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주면서 눈을 제
외한 다른 얼굴 부위의 색상은 흐리게 하였던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의
형태와 많이 흡사하다고 보여 지며, 실제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클레오파
트라’ 작품의 영향으로 검은 머리, 긴 눈, 빨간 입술 등의 이집트풍 화장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3) 립

립 색상은 <그림 8-2>에서와 같이 강하지 않은 붉은 기가 도는 칼라를
사용하거나 <그림 8-2>과 <그림 8-4>와 같이 핑크계열이나 오렌지 계열의
컬러를 의상 색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였다. 이러한 컬러로 작품 속 클레
오파트라가 메이크업을 하고 등장하는 것은 이집트 여성들이 붉은 계열이
나 오렌지 계열의 칼라를 선호하였던 역사적 자료도 있지만, 작품의 제작
당시 유행하였던 메이크업 패턴에서도 내추럴 핑크와 오렌지의 립 칼라가
유행하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영화 제작 당시의 유행 패턴이 영
화의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묻어나기도 하지만 반면에 영화 속 캐릭터를 이
해시키기 위한 메이크업의 특징이 영화가 상영되는 당시의 유행 흐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작품의 클레오파트라 메이크업 또한 적지 않게 대

중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림 8-27>에서는 아름답게 청결하게 피부를 유지하고 손톱에서 발톱까지 해나를 이용해 물을 들여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장식하고 꾸몄던 클레오파트라를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 8-24>, <그림 8-25>와 같이 여러 가지 화장품 용기가 가득 놓인 화장대의 앞에서의 거울을 보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이나, 화장의 패턴을 실험해보고 있는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과거에 클레오파트라가 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헤어스타일

이집트에서 기후나 청결, 장식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가발과 헤어장식을 많이 사용한 역사적 사실을 <그림 8-23>, <그림 8-26>과 같이 영화에서도 가발을 손질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장식을 다양하게 연출함으로써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가발과 헤어 장식 등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궁에서의 일상생활이나 휴식, 연회 등에서는 클레오파트라는 통치자의 모습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장식과 헤어 연출을 하였다. 대관식이나 전투, 외교적인 일과 같이 여성적인 면보다는 이집트의 통치자로서 좀더 강인한 이미지를 원 할 때는 파라오의 모습으로, 종교적 의식을 치루거나 로마를 방문 할 때나 나일강 주변을 여행할 때와 같이 백성들에게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이 보여 질 때는 이시스의 모습으로 비취지기 위해서 스타일링을 하였다.

작품 속에서 가발의 기본 형태는 검정색의 컬러로 <그림 8-25>과 같이 반듯하게 짧게 자른 앞머리에 단발머리의 형태이며, 거기에 머리를 땋거나 거기에 화려한 금속제의 둥근 장식이나 리본 등을 한 <그림 8-12>과 같은 노프렛이나 짧은 보브 형태의 컷이 가장 일반적이다.

평상시에는 이러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가발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땋아서 장식을 하거나 기본 형태에서 컬을 주어 헤어스타일에 변형을

주기도 하였다.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위한 가발로는 유연한 금이나 유리와 같은 화려한 재료 등을 가발 전체에 장식한 <그림 8-9>, <그림 8-16>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는 고대유물인 <그림 4-2>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 이외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일인 <그림 8-17>과 같이 단순히 반 머리를 뒤로 묶어 장식한 형태도 재현해 보지만 이는 제작 당시인 1960년대 유행하던 비하이프(bee-hive)스타일과 유사하며 연회에 참여하던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 8-7>과 <그림 8-18>도 비하이프(bee-hive)스타일이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작품에서는 평상시에는 <그림 8-19>과 같이 기본 머리형태에 면사포와 같은 두건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도 재현되는데 이는 로마에서 얇은 것에서부터 두꺼운 것 까지 다양한 직물로 머리쓰개를 하던 모습과 유사하다.

<그림 8-5>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루는 장면으로 머리에 쓰고 있는 붉은 색의 관은 투탕카멘의 묘에서 발견된 투탕카멘의 두상에서 그가 쓰고 있던 ‘헤드 캡’이라는 관과 유사한 형태로 이는 뱀 머리 모양의 장식인 우라에우스를 장식하여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강인한 파라오의 모습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에 맞는 장식품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전쟁터에 참여한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재현한<그림 8-6>에서도 알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쓰고 있는 푸른색의 왕관 또한 상, 하 이집트가 통일된 이집트를 통치한 자의 왕관의 형태와 유사하며, 이 형태는 오시리스의 죽음 이후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호루스가 <그림 1-3>와 같이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강력한 파라오를 닮길 원했던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림 8-5>과 <그림 8-6>는 네페르타리⁷¹⁾ 여왕이 푸른색 왕관을 가발 없이 썼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사건 진행을 보면 안토니우스가 로마에 돌아가 옥타비아누스의 동생인 옥타비아와 결혼하고 이에 실망한 클레오파트라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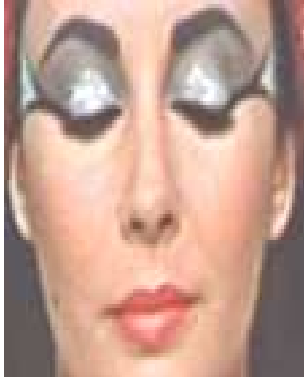
71)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왕비인 아케나텐의 아내

신을 만나기 위해 돌아온 안토니우스를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이집트의 여왕으로써 대하게 되는데 이때의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으로써의 강력하고 권위적인 모습과 안토니우스에게 최대한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클레오파트라의 이러한 심리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 8-10>, <그림 8-13>, <그림 8-14>, <그림 8-15>과 같이 뱀 머리를 장식한 왕의 권위 상징하는 왕관이나, 화려한 색상의 보석, 반짝이는 금빛으로 장식한 가발 등 함께 조합하여 다양한 머리장식을 한다. 화려한 장식은 클레오파트라를 신격화하는 장면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그림 8-11>은 시저의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집트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이시스 여신으로 추앙 받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시저의 여인이며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인정받고 시저,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리온 세 사람이 오리시스, 이시스, 호루스로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여 지기 위해서 노력하여 꾸민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왕관의 형태는 12마리의 뱀 머리 장식과 머리를 감싸는 독수리날개에 그 위를 아몬 신의 두개의 깃털과 라 신의 태양 원반을 얹어 놓은 것으로 과거의 여왕들이 부재중인 남편의 안녕을 비는 뜻에서 쓰곤 했었다. 뱀 머리의 장식은 <그림 2-2>이시스의 모습을 담은 유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클레오파트라가 자살 후 이집트가 로마로 넘어 갔을 때 로마의 이율이 3/2로 떨어질 정도 이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이집트 국고는 풍부하였다. 이에 장신구들은 금, 은, 청동, 마노, 에메랄드, 자수정, 터키옥, 석류석, 유리 등 아름다운 색채와 광택을 가진 금속과 보석이 풍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장식이 화려한 헤어스탈일의 가발과 함께 목걸이와 귀걸이 장식이 전체적인 코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장신구의 왕권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림 8-22>과 같이 의상에도 왕권을 상징하는 뱀 문양의 자수를 넣어 제작 하였다.

이 작품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입은 의상은 그 당시 로마나 어린시절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스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강력한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움 여인인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를 관객에게 이해시킴과 동시에 이집트 속의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담기위해 현대복식에 이집트의 복식 특징을 가미한 형태로 이해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스타일은 가슴이 깊이 파인 네크라인에 어깨선부터 가슴, 허리라인까지 타이트하게 몸매가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스커트 부분은 주름진 형태의 일자로 떨어지며 거기에 주름지는 이집트 의상의 특징이 더 해진다.



< 그림 8-2 >
물고기 모양의 눈꼬리



< 그림 8-3 >
삼각형의 눈꼬리



< 그림 8-4 >
호루스 눈의 형태



< 그림 8-5 >
왕권의 상징인 도끼와 자뿔이



< 그림 8-6 >
통일된 이집트 관의 형태



< 그림 8-7 >
벌집 형태의 헤어스타일



< 그림 8-8 >
시저의 동전으로 만든 파시움



< 그림 8-9 >
금속의 장식과 함께 땀은 머리



< 그림 8-10 >
뱀의머리로 장식된 관

- 출처 : DVD 'Cleopatra I, II' 비트윈(주)(20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 그림 8-11 >
이시스 여신을 모방한 장면



< 그림 8-12 >
노프렛의 형태



< 그림 8-13 >
원추형의 금속으로 만든 가발



< 그림 8-14 >
금속으로 장식된 뿔은 가발



< 그림 8-15 >
터번 형태의 가발



< 그림 8-16 >
장식된 사각형태의 천



< 그림 8-17 >
bee-hive형의 헤어스타일



< 그림 8-18 >
bee-hive형의 헤어스타일



< 그림 8-19 >
긴 천을 이용한 머리쓰개

- 출처 : DVD 'Cleopatra I, II' 비트윈(주)(20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 그림 8-20 >
옆트임이 있는 튜닉 형태의
의상



< 그림 8-21 >
한쪽 어깨를 드러낸
튜닉형태의 의상



< 그림 8-22 >
뱀 문양의 자수가 있는
의상

- 출처 : DVD ‘Cleopatra I,II’ 비트윈(주)(20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그림 8-23>
가발 보관대



<그림 8-24>
화장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림 8-25>
화장 기술을 연습하는 장면



<그림 8-26>
가발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



<그림 8-27>
손톱과 발톱을 다듬고 있는 장면

- 출처 : DVD ‘Cleopatra I,II’ 비트윈(주)(20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제 4절 1999년 작품 레오노어 바렐라(Leonor Varela)의 ‘클레오파트라 (Cleopatra)’

1. 작품 개요

‘클레오파트라’는 레오노어 바렐라<그림 9-1>가 클레오파트라 역으로 티모시 달튼, 빌리제인과 함께 한 작품으로 1999년 미국에서 크랭크 로담이 감독을 맡았다.

영국 태생의 프랭크 로담 감독은 광고 카피라이터를 거쳐 BBC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출발했다. 이후 1999년에 수차례 영화화 되었던 사극을 큰 스케일의 2부작 TV영화로 레오노어 바렐라의 ‘클레오파트라’를 제작한 것이다. 제작비 7천만불에, 제작기간 2년 6개월에 걸친 대작으로 그 규모는 엑스트라 1만 5천 여 명에 말 7천 필이 소요되고, 1천 5백 종류의 보석들이 등장할 정도였다고 한다.

주연을 맡은 레오노어 바렐라(Leonor Varela)는 1972년 12월 생으로 Santiago chile에서 태어났다. 레오노어 바렐라는 2001년 ‘텍사스레인저(Texas Ranger)’에서 페르티타 역으로, 2002년 ‘블레이드2 (Blade 2)’에서 니사 역으로 출연한 바 있으며, 그 후 ‘이노센트 보이시스’(innocentvoices), ‘예레미아(jeremish)’ 등을 거쳐 1999년에 ‘클레오파트라’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 레오노어 바렐라는 작품에 참여할 당시 27세였고 키는 170cm로 그전 작품을 맡았던 다른 배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키가 큰 편이었다. 어두운 피부와 길고 높은 코, 도톰한 아랫입술 등의 레오노어 바렐라의 외모에서 클레오파트라와의 유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역사 소설가 마가렛 조지



< 그림 9-1 >
레오노어 바렐라

의 ‘클레오파트라’를 원작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나리오의 줄거리는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의 힘으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고, 시저를 유혹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지만 시저가 죽음에 이르자, 안토니우스를 찾아가는 외교적이고 간사한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영화의 흐름은 서사극의 형태로 1963년 엘리자베스 테일러 주연의 ‘클레오파트라’와 유사하지만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963년 작품에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통치자인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이시스 여신이라 생각하고 신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로마를 뒤흔든 사실을 중심으로 정교한 화장술과 화려한 치장술로 클레오파트라를 표현한 반면에 이 작품은 1963년 작품과 비교하여 보면 오색실로 엮어 놓은 듯 다양한 클레오파트라의 성품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왕이 되어야 했고,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시저의 힘이 필요했기에 고급 창녀의 도움까지 얻어 정복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배우는 간사함과 천박함 정열, 그리고 외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또한 시저를 유혹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로마를 방문한 자신과 시저에게 선물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무시해버리는 로마인들에게 시저의 충고도 무시해 버리고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시저의 아들로 로마에 선언하게 만들 정도로 클레오파트라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무모함과 대담성, 명석함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영화는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품 외에도 로마에 갇힌 빛으로 모아둔 곡식을 훔친 배고픔에 굶주린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주고 곡식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관대함과 함께 시저가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꿈을 이어 나가기 위해 안토니우스를 찾아가면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모습을 양면에 담은 동전을 발행해 세계를 둘이서 정복하고자 하는 권력욕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영화 흐름 속에서의 상황 설정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자, 1960년대 작품과의 차이점이다.

2.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분석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절제된 메이크업과 코디를 활용하여 극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로 클레오파트라의 관대함, 사악함, 정열, 대담함, 욕정, 및 외교적인 면 등 클레오파트라의 다양한 성품들을 관객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극 중에 표현되는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은 극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주고 때에 따라 강조도 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상당히 절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이 작품이 제작될 당시 전체적인 메이크업과 코디네이션의 흐름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던 영향으로 보여 진다.

1) 메이크업

(1) 피부

영화 속의 클레오파트라인 레오노어 바렐라의 피부가 역사 속의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의 원래 피부 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피부화장을 하였음에도 역사 자료 속에 준하는 어두운 피부가 연출되고 있다.

(2) 눈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아이 메이크업은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눈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아이섀도우의 색상이나 아이라인 등이 강하지 않게 절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눈썹은 헤어 칼라에 맞추어 어둡게 그리기는 하였지만 검정색 보다는 다크 브라운 색상에 가깝고 그 두께나 길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형태가 아닌 배우 자신의 눈썹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이라인은 호루스의 눈을 묘사한 형태로 눈 주위를 검게 칠하고 눈 꼬리를 직선형으로 길게 빼서 그려 넣었지만 길게 그린 정도는 인위적으로 라인을 그려 넣었다기보다는 내추럴 메이크업에 아이라인을 강조하여 다소 길게 뺀 정도이다.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아이섀도우의 색상은 그린, 블루, 골드 컬러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투장면인<그림 9-3>와 시저의 장례식 장면인 <그림 9-5>에서와 같이 영화에서 보여 지는 대다수의 장면에서는 아이새도우 칼라를 사용하지 않았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는 장면<그림 9-2>과 로마를 방문할 때의 모습인 <그림 9-4>은 채도가 낮은 그린 색상의 아이새도우를 이용하여 눈썹부위까지 눈두덩이 부위 전체를 펴 바른 형태로 펄 감을 주어 화사하게 표현함으로써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당당하고 화려한 이집트의 여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전쟁에서 패한 뒤 로마의 전리품이 아닌 이집트의 영원한 여신으로서 기억되는 길을 택한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인 <그림 9-6>의 골드 아이새도우 색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클레오파트라를 죽음이 아닌 신들의 신비로운 불멸의 세계로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림 9-7>은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다시 돌아와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면의 화장으로 역사 자료에서 눈두덩이에 발랐던 색상인 블루칼라를 쌍꺼풀 라인까지 그라데이션하여 화사하면서도 강한 클레오파트라의 여왕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많은 부분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아이새도우 색상을 거의 넣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에서 약간의 색상 표현만으로도 상당히 화사하면서도 강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영화 전반 적으로 아이새도우를 하지 않고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며, 아이새도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림 9-2>와 <그림 9-3>과 같이 색상을 강하지 않게 사용하며, 여기에 펄 감을 가미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9-6>와 같은 경우는 의상의 컬러와 맞추어 금빛의 메탈 릿 펄 아이새도우를 사용하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질감에 의한 메이크업이 유행하여 펄과 글로스를 사용하였던 영향으로 보여 진다.

3) 립

립스틱의 칼라는 내추럴 오렌지, 또는 내추럴 핑크 계열을 사용하여 립스틱을 발랐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배우의 입술 색상처럼 느껴질 정

도의 컬러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9-6>에서와 같이 건강한 피부에 립글로스의 반짝이면서 촉촉한 느낌을 입술에 표현하였다.

2. 헤어스타일

이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그리스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이 활용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인이었고 클레오파트라의 두상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유물의 헤어스타일인 <그림 1-1>을 살펴보아도 간단히 뒤로 묶은 쪽진 모양 또한 그리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인 듯 하다.

극 중 클레오파트라는 가발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의 머리를 활용하여 연출하였으며 그 스타일은 <그림 9-10>와 같이 앞 가리마를 한 검정색의 긴 내추럴 웨이브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헤어스타일을 기본으로 간단한 변형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잠자리와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는 <그림 9-10>과 같은 머리형태를 하고 있다가 <그림 9-8>과 같이 윗머리의 반을 고리를 만들어 장식에 달린 머리끈을 이용하여 묶기도 하고, <그림 9-9>와 <그림 9-12>처럼 옆머리를 자연스럽게 꼬아 넘겨 목 뒷부분에 묶거나 머리핀으로 고정을 하기도 한다. 또한 발견된 유물 중 클레오파트라 두상에서처럼 곱게 뒤로 빗어 넘긴 머리를 쪽진 모양으로 묶은 스타일도 <그림 9-13>와 같이 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헤어스타일은 그리스 여성들의 그림을 담은 유물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물 속 그리스 여인들은 쥘과 웨이브로 아름답게 정리한 머리를 중앙 앞가르마를 타고 관자놀이의 일부가 덮이도록 하여 한 줄기의 리본으로 잘 매었으며, 뒤쪽으로 내려뜨리거나 머리 뒤에 고리를 만들어 묶고 3, 4줄의 쥘진 머리를 가슴 쪽으로 내렸다. 이러한 그리스의 헤어 형태는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며 또한 그

리스 시대에는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처럼 일반적으로 머리를 풀어 내리거나 목에서 자유롭게 묶는 간단한 형태가 유행했다.⁷²⁾

헤어 장식은 간소하고 자연스러운 머리의 형태에 머리를 묶고 길게 늘어질 정도로 긴 머리끈과 간단한 머리핀만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방문하여 지내는 동안이나 시저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림 9-16>과 같이 머리쓰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로마에서 베일 쓰던 것과 같다.

극중에서는 왕관 또한 여왕으로서 국정을 보는 대외적인 자리나 로마를 방문할 때 외에는 거의 쓰지 않고 등장한다.

<그림 9-16>은 시저의 초청으로 로마를 방문하던 장면으로 왕을 상징하는 코브라의 머리가 크게 달려있는 단순한 형태지만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던 장면인 <그림 9-19>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방문할 때인 <그림 9-14>의 관의 형태는 <그림 2-1>와 같이 오시리스의 관에서 볼 수 있는 깃털이 달린 아테프관(Atef)으로 타조의 깃털과 양의 뿔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그림 2-2>이시스의 관 가운데 태양의 원반과 유사한 작은 구가 자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은 여신임을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알리고자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생각을 담고 있다. 전쟁터에 나간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인 <그림 9-17>과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다시 돌아와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혼을 백성들에게 발표할 때인 <그림 9-15>는 클레오파트라가 뱀의 머리로 장식된 관을 쓰고 나오는데 이는 <그림 4-8>와 같이 네페르타리의 관과 유사하며, 이시스의 상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하토르 여신이 이시스 여신에게 선물한 소뿔로 된 장식을 뺀 상태이다.

이 영화에서 활용되는 의상의 형식은 그리스의 의복인 키톤과 히마티온을 활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의 천을 몸에 두르거나 감사는 자유로운 형태로, 일정한 규격이 없고, 때와 장소에 맞게 길이, 소재, 색상, 입는 방법 등의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즉, 전체적으로 드레이퍼리하여,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 조

72) 정홍숙, 앞의 책,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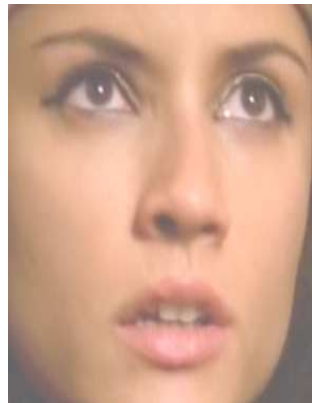
화로서의 실루엣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림 9-18>에서 <그림 9-28>까지 모든 의상의 기본은 도릭 키톤의 형태에 가깝고 <그림 9-25>과 <그림 9-26>에서 보여 지는 의상은 키톤 위에 히마티온을 입은 형태이다.

이러한 두르는 다양한 형태의 드레이프되는 의상은 이집트의 왕비와 귀족 부인들도 착용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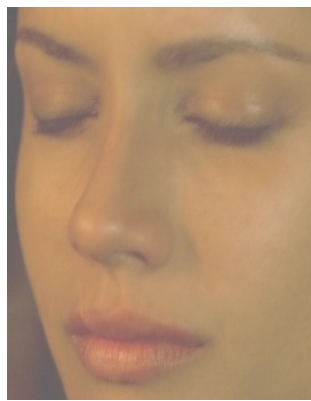
< 그림 9-2 >
유혹하는 장면의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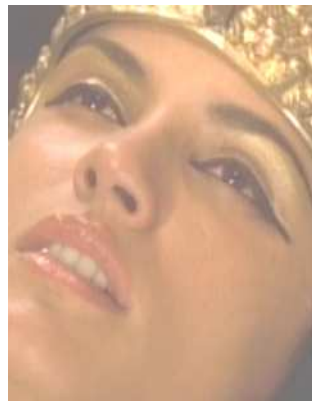
< 그림 9-3 >
전투 장면의 메이크업



< 그림 9-4 >
로마 방문 시 녹색 아이섀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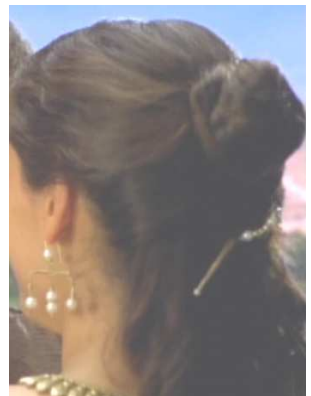
< 그림 9-5 >
장례식장면의 내추럴 화장



< 그림 9-6 >
자살 장면의 금빛 아이섀도우



< 그림 9-7 >
블루 아이섀도우를 이용한 화장



< 그림 9-8 >
반머리 묶은 형태



< 그림 9-9 >
반머리 뿔은 형태



< 그림 9-10 >
내추럴 웨이브

- 출처 : DVD 'Cleopatra' 비트윈(주)



< 그림 9-11 >
반머리 묶은 형태



< 그림 9-12 >
뒤로 뺀 머리 형태



< 그림 9-13 >
쪽머리형의 업스타일



< 그림 9-14 >
아프테관 형태



< 그림 9-15 >
독수리 깃털모양의 관



< 그림 9-16 >
우라에우스로 장식된 관



< 그림 9-17 >
전쟁터에서의 헤어장식과 의상



< 그림 9-18 >
키톤 형태의 의상



< 그림 9-19 >
이시스 여신을 상징하는 관

- 출처 : DVD 'Cleopatra' 비트윈(주)



< 그림 9-20 >
튜닉 형태의 의상



< 그림 9-21 >
한쪽 어깨에 걸친 히마티온



< 그림 9-22 >
로마 방문 시 복식



< 그림 9-23 >
키톤 형태의 의상



< 그림 9-24 >
전쟁터에서의 복식



< 그림 9-25 >
키톤과 히마티온



< 그림 9-26 >
키톤에 히마티온을 걸친 형태



< 그림 9-27 >
튜닉 형태의 의상



< 그림 9-28 >
히마티온을 묶은 형태

- 출처 : DVD 'Cleopatra' 비트윈(주)

이상에서 살펴본 1946년에서부터 1999년에 걸쳐 다양한 시각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재현한 4편의 영화를 역사적 자료와 제작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영화 작품 속의 클레오파트라 분석〉

제작 년도	작품 제목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	클레오파트라 배역 및 배우의 특징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1946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 원작 : 조지 버나드 쇼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	어린 철부지 소녀가 시저의 도움으로 강인한 여왕의 모습을 갖추게 됨.	비비안 리 제작당시 32세 신장 160cm의 작은 체구, 하얀 피부, 둥그란 눈과 작은 입술들의 특징이 순수하면서도 당찬 이미지를 보여줌.	메이크업 : 1940년대의 메이크업 유행 패턴처럼 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색상은 사용하지 않음. - 피부 : 완벽히 커버하여 하얗게 표현 - 눈 : 눈썹은 가늘고 검정색을 이용하여 진하게 표현. 아이라인을 이용하여 눈 꼬리가 길게 빠진 긴 눈매를 강하고 섬세하게 그려냄. - 립 : 진한 붉은 색을 이용하여 섬세하고 윤곽을 뚜렷하게 표현 헤어스타일 : 그리스의 웨이브의 형태가 있는 헤어스타일을 기본으로 이집트의 가발과 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스나 로마의 변형된 형태도 보여짐

제작 년도	작품 제목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	클레오파트라 배역 및 배우의 특징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1953	클레오파트라의 이틀 밤	밤마다 자신의 잠자리에 병사를 불러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 독살을 시키는 잔인한 요부로 표현.	<p>소피아 로렌</p> <p>제작당시 19세,</p> <p>신장 174cm로 당시 볼륨 있는 몸매로 영화계의 눈길을 끌었으며, 섹스 심볼로써 유명함.</p> <p>어두운 피부와 강한 눈매, 큰 입 등은 작품의 요부적 이미지를 보여줌.</p>	<p>메이크업 :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재현하기보다는 1950년대의 메이크업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p> <p>-피부 : 어둡게 표현</p> <p>-눈 : 아이라인을 짙게 그려 눈을 크게 강조, 아이 펜슬로 각진 형태의 눈썹을 인위적으로 그림.</p> <p>-립 : 밝은 붉은색</p> <p>헤어스타일 : 짧은 앞머리가 있는 웨이브진 검정색의 긴 머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p> <p>앞머리는 v자 형태로 올라간 눈 꼬리를 더욱 강조.</p> <p>다양한 형태의 헤어스타일은 아니지만 고증자료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가발들이 등장하고, 그리스의 헤어스타일이 응용된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p>

제작 년도	작품 제목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	클레오파트라 배역 및 배우의 특징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1963	클레오파트라	서사극의 형식으로 역사 속의 클레오파트라를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그려내고 있음.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강력한 통치자이며, 이집트 백성들에게 절대권력의 신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의상과 소품들을 적극 활용.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작당시 31세, 신장 162cm의 작은 체구로 여러 번의 이혼을 한 당대 최고의 미녀스타로 현대에서도 종종 클레오파트라로도 비유되고 있음. 피부가 하얗고 이에 상대적으로 진하고 술이 많은 눈썹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이 여성스러우면서도 강한 카리스마를 이미지를 만들어냄.	메이크업 : 고증자료에 충실한 메이크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이 제작당시인 1960년대에 유행함에 영화 전반적으로 항상 강한 눈매를 표현. - 피부 :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였으며, 살구색 계열을 이용하여 얼굴에 혈색을 줌. - 눈 : 눈썹은 굵고 진하게 그리고, 그 형태는 관자놀이까지 길게 빠진 각진 형태. 아이라인 : 속눈썹 라인 전체를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이용하여 그린 형태에 아이라인을 길게 빼줌. 길게 빼준 아이라인의 형태는 일자형, 삼각형, 물꼬기 꼬리형으로 다양함. 아이새도우는 녹색과 푸른색을 이용하여 눈썹 아래 눈두덩이 전체를 바르고 있음 - 립 : 립스틱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밝은 붉은 색과 핑크색이 주를 이루고 있음. 헤어스타일 : 검정색 단발머리를 기본형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가발과, 관들이 제작. 이집트의 고증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제작 당시 유행하였던 벌집 형태의 헤어스타일도 나타남.

제작 년도	작품 제목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캐릭터	클레오파트라 배역 및 배우의 특징	작품 속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특징
1999	클레오파트라 〈원작 : 마가렛 조지의 ‘클레오파트라’〉	서사극의 형태에 가깝지만 클레오파트라의 관대하면서도 잔인하고, 외교적이면서 간사하며, 여성스러운 면서도 강인한 통치자의 모습을 갖춘 다양한 성격을 영화 속 상황 설정을 통해서 좀더 인간적으로 그려냄.	레오노어 바렐라 제작 당시 27세, 신장 170cm로 어두운 피부와 길고 높은 코, 도톰한 아랫입술 등의 레오노어 바렐라의 외모에서 클레오파트라 외모의 특징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음	<p>메이크업 :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은 제작 당시 메이크업 유행패턴인 내추럴 메이크업의 형태로 남.</p> <p>-피부 : 배우의 피부 톤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함.</p> <p>-눈 : 눈썹은 표준형의 형태로 다른 작품들처럼 눈썹을 길게 표현하지 않음, 아이라인은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처럼 눈을 강조하긴 하였으나 뷰티메이크업의 아이라인에 약간 강조한 정도. 아이섀도우는 푸른색과, 녹색, 금색의 아이섀도우를 사용. 컬러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1990년대 유행하였던 글로시하고, 메탈릭한 아이섀도우 연출.</p> <p>-립 : 립스틱은 내추럴 핑크나 오렌지 색상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립 표현. 상황에 따라 글로시하게 표현하도 함.</p> <p>헤어스타일 : 뒤로 빗어 넘겨 쪽진 형태나, 귀 윗 쪽 머리만 뒤로 넘겨 묶거나 땀은 형태로 그리스의 간소하고 깨끗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연출. 왕권을 상징하는 관이나 장신구들 또한 비교적 소박하고 간단한 형태로 재현.</p>

<4편의 영화 속의 재현된 클레오파트라의 모습>



< 그림 10-1 >

1946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출처 : DVD 'caesar and cleopatra'(주)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 그림 10-2 >

1953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출처 : DVD 'Cleopatra'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 그림 10-3 >

1963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 출처 : DVD 'Cleopatra I, II'
비트윈(주)(20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 그림 10-4 >

1999년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
- 출처 : DVD 'Cleopatra' 비트윈(주)

제 4장 결 론

세계적인 미인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는 후대에 많은 예술인들에 의해서 재현되어졌지만 대부분의 묘사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자신의 비정한 야망과 별난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못 남성들을 유혹하는 방탕한 요부로 그려졌다. 이러한 묘사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역사 속의 클레오파트라가 후대의 작품 속에서의 클레오파트라보다 덜 흥미로운지는 모르겠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전설 속의 클레오파트라 못지않게 매력적이었으며,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은 뚜렷한 눈썹, 아랫입술이 굴곡진 도톰한 입술, 긴 코와 어두운 피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형태에는 이집트의 뜨거운 날씨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신분의 구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집트 신화의 여신 이시스를 닮기 위한 노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형태들은 이집트를 포함하여, 그리스, 로마의 복식이나 헤어스타일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이집트의 종교와 신을 섬기고 의식을 중요시 여기기는 하였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에서 태어났고 이집트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집트의 화장은 눈 화장과 향료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클레오파트라의 화장의 기교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었으며, 일찍이 꿀을 팩의 재료로 사용했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향장품을 만드는 비법도 단연 뛰어났다. 클레오파트라의 눈 화장법으로는 눈두덩이에 초록색의 공작석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은 코울을 이용하여 검게 칠하였으며, 그 형태는 호루스의 눈매를 따랐다.

이러한 메이크업의 형태는 1946년 작품에서부터 1999년의 작품까지의 클

레오파트라를 재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각 작품이 제작 하던 당시에 메이크업 유행 패턴과 클레오파트라를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1946년 작품은 어리고 철없는 클레오파트라를 표현함으로써 아이새도우 색상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하얀 피부에 붉은 색 립을 하고 눈만 강조되는 형태였으며, 1953년 작품의 클레오파트라는 요부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각진 눈썹과 상승된 아이라인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 1963년 작품은 서사극 형식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신적인 존재의 완벽한 통치자로 표현하였으며, 최대한 고증자료에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당시 눈을 강조하는 이집트의 메이크업 형태가 유행하여, 극중 상황에 상관없이 진한 아이라인과 풍성한 눈썹에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나타나고 있다. 1999년의 작품은 다양한 성품의 인간적인 클레오파트라를 그려내고 있으며, 내추럴 풍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둘째, 클레오파트라의 헤어스타일은 이집트의 여성들처럼 가발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왕권을 강조하고, 절대 권력의 이시스의 여인을 닮기 위해서 고대의 여왕과, 이시스 여신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왕관과 가발을 사용하고 있다.

1946년 작품에서, 그리고 1999년의 영화에서도 여왕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에서는 고대 자료에서 보여 지는 절대적인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뱀이나 독수리 날개 형태의 가발과 왕관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 왕가의 헤어스타일 외에도 인위적이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하기도 하고 단아하게 틀어 올리는 등의 그리스와 로마의 헤어 형태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클레오파트라의 의상은 이집트의 튜닉과 칼라시리스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이집트 후반기에 나타났던 드레이퍼리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클레오파트라를 재현한 영화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의상을 재현하거나 이와 비슷한 모양이나 라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현대의 복식에 이집트 복식의 특징을 더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그리스의

히마티온이나 키톤의 형태와도 유사하다.

의상 위에 장식되어지는 장식품들은 어깨까지 덮어지는 목걸이인 파시움과 팔찌, 목거리, 귀걸이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장식품 또한 왕권을 상징하는 뱀의 형태나 피라미드, 나일강의 풍요 등을 상징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화장술이 변하고, 화장품도 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나아졌지만, 볼에는 장비 빛, 입술에는 붉은색, 눈썹과 속눈썹에는 검은색, 눈꺼풀에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는 등 메이크업의 대원칙에는 과거 이집트에서 지금 현대 까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미용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집트의 미용기술의 전성기를 이룬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의 패턴은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들의 자기표현이 활발해지면서 2000여년이 지난 1960년대에도 유행했을 뿐 만 아니라, 2005년 오늘날에도 클레오파트라의 메이크업 패턴은 또 다시 메이크업 트렌드로 선보여 지고 있다.

후대에 재현되어지는 클레오파트라 작품들은 모두 같은 역사 속의 클레오파트라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이 클레오파트라를 바라보는 관점과, 제작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의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복식 등에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 속에도 각각의 영화들은 고증자료에 의한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복식, 장신구 등을 연출함으로써 역사 속의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재현해 내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클레오파트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담고서 우리에게 미의 한 상징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미경 옮김 (Pallington, jessica 저), 『립스틱』 서울 : 뿌리와 이파리, 2003
- 강주현 옮김 (니콜 아브릴 저), 『얼굴의 역사』 작가 정신, 2001
- 김기연 옮김 (토머스 후블러 저), 『클레오파트라』 서울 대현 출판사, 1993
- 김덕록, 『화장과 화장품』 도서출판 답게, 1997
- 김보현 옮김 (베이트리스 폰타넬 저), 『치장의 역사』 김영사, 1979
- 김이경 옮김 (요시무라 사쿠지 저),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 기행』 도서출판 서해문집, 2002
- 김이정 옮김 (엘리자베스 데이비드, 에블린 위쑹, 이브 쏘발라 저), 『신비의 이집트』 효영출판, 2002
- 김창준 『엑세서리』 주식회사 라미라, 1992
- 김화경 『세계 신화속의 여성들』 도원미디어, 2003
- 박길순, 정현숙 옮김 (Elizabeth B. Hurlock 저), 『복식의 심리학』 경춘사, 1990
- 박일록 『서양복식사』 원광대학교 편집부, 1989
- 백영자, 유효순, 안중기 『서양복식문화사』 경춘사, 1998
- 손주영, 송경근, 『한권으로 보는 이집트 역사 100장면』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1
- 송숙자 옮김 (장베르쿠테 저),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 시공디스커버리, 1995
- 송인갑 『향수, 영혼의 예술』 디자인 하우스, 1998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0
- 안정효 『신화와 역사의 건널목 - 헐리우드 키드의 20세기 영화 그리고

- 『문학과 역사』 서울 들녘, 2002
- 유태순, 조기여, 이화순 옮김 (히데오 아오기 저), 『서양 화장 문화사』 동서 교류, 2004
- 이기문 옮김 (로라 포맨 저), 『클레오파트라 2000년만의 출현』 효형출판, 1999
- 이기숙, 이기섭 옮김 (세르기우스 골로빈, 마르치아 엘리아데, 조지프 캠벨 저), 『세계 신화 이야기』 까치글방, 2001
- 이덕수 옮김 (W. 셰익스피어 저),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형설출판사, 1990
- 이응균, 천경호 옮김 (조지하트 저), 『이집트 신화』 범우사, 1999
-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옮김 (Blanche Paync 저), 『복식의 역사 -고대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도서출판 까치, 1988
- 임희선 옮김 (하루아마 유키오 저), 『화장의 역사』 사람과 책, 2004
- 지현 옮김 (도미니크 파게 저),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1998
-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교문사, 1981
- 현대패션 100년 편찬 위원회 저,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2002
- 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향. 향수 이야기』 도서출판 한송, 1999

논 문

- 고정원 「Drape를 통해 본 고대 이집트 복식과 고대 그리스 복식의 연관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구나정 「이집트 신화를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
- 김희선 「장 폴 고티에의 영화의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수현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 재현된 동양과 여성의 의미」 안양과
학대학 논문집 제 31집 2004, 12
- 방수진 「서양메이크업의 역사에 관한 연구」 목포과학대학 논문집
제 24집 2호, 2000
- 신명자, 이기룡 「메이크업의 변천과 사회적 영향」 대전보건대학교 논문
집 제 20집, 1999
- 이윤선 「Make-up과 Hair style에 의한 패션 이미지의 변천 연구」
동덕여자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자경 「1954년과 1955년 영화 사브리나에서 나타난 토탈 코디네이션의
의상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 이치현 「아로마테라피 도자램프 개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형규, 나용태 「고대 수메르, 이집트, 미논, 미케네, 그리스 목걸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연구논문, 2003
- 이환태 「앤터니와 클레오파트라에 나타난 성격화의 실체」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전선정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교육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4
- 한혜숙 「서양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1910~1990
년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학술지

- 신지현 「이집트시대의 화장과 헤어스타일의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권
2호 2001.1
- 이대석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신화적 인물로서의 앤토니와 클레오
파트라」

한양대학교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1999.2
조진해, 손희정 「이집트 신화를 통해서 본 신의 복식연구」 한국의류학
회지 2000.7

DVD 자료

〈The Real Cleopatra〉 다우리 엔터테인먼트 (Discovery Channel)
〈Caesar and Cleopatra〉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Cleopatra〉 비트윈(주)
〈Cleopatra〉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Cleopatra I, II〉 비트윈(주) (20세기 폭스 홈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자료

<http://www.nowcos.co.kr>
<http://artema.cafe24.com>
<http://www.hani.co.kr>
<http://www.happycampus.com>
<http://kr.image.search.yahoo>
<http://search.daum.net>

ABSTRACT

A Study on Cleopatra's Make-up and Hair-style - Focused on Cleopatra movies between 1946 and 1999

-

Kim, yun-jeoung

Maior in Makeup Art

Department of Beauty Art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Ancient Egypt had quite advanced beauty techniqu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makeup, skin care and hair-style and its beauty skill was in the heyday during the period of Queen Cleopatra. Not only in the past but also in today after around 2000 years, Cleopatra is called as the symbol of beauty and she is being reproduced in contemporary trendy makeup. Thus, the present study examined Cleopatra's makeup and hair-style.

Historical materials on Cleopatra are merely a small number of head statues, reliefs and coins, and the images on even these objects are just assumed to be Cleopatra. Relatively clear images of Cleopatra were created by artists in later ages and they, under th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f their days, describe Cleopatra differently from her original appearance.

Thus the present study selected four movies that represent the image of Cleopatra among many films between 1946 and 1999 that interpret and describe Cleopatra in various looks, and examined the

make-up and hair-style of Cleopatra in the movies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and the tempor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films.

The four movies selected were one starring Vivian Lee in 1946, one starring Sophia Loren in 1953, one starring Elizabeth Taylor in 1963 and one starring Leonor Varela in 1999.

Because Cleopatra, who was a Greek, was enthroned as the queen of Egypt, she attached importance to Egyptian religions in order to rule the people and particularly struggled to be goddess Isis with absolute power. What is mor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Egypt had maintained a close relation with Rome from the past until the day of Cleopatra's reign. Thus, Cleopatra's makeup and hair-style show various origins including Egypt, Greece and Rome compositely. Uraeus symbolizing sovereignty and goddess Isis and many other emblems such as eagle, bull's horn and solar disk were used in dresses, crowns and accessories.

Goddess Isis that Cleopatra tried to imitate ruled the country affluently, exercised powerful magic, saved her son from the evil and enthroned as the ruler, and was worshipped as the ideal mother and wife. The image of Isis was highly appealing to Cleopatra who desired to govern the world as a unified kingdom with her love. The strong image of Cleopatra revived as a trend in the 1960s when women's participation in society was encouraged and active and strong women were preferred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images of Cleopatra in the four films have a common point in that they were based on historical materials, but still each of them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producer's intention or the situation when the movie was made.

Cleopatra acted by Vivian Lee is a character who grows into a strong ruler by the help of Caesar, and Cleopatra acted by Sophia Loren is a seductive woman of a strong character. Cleopatra by Elizabeth Taylor and one by Leonor Varela are all epic dramas focused on delivering historical facts, but Cleopatra by Elizabeth Taylor uses various gorgeous costumes and properties to describe Cleopatra with enormous power as Isis the goddess of fertile Egypt while Cleopatra by Leonor Varela is described as rather a simple human with diverse characters who is diplomatic, shrewd, sometimes generous and sometimes cruel, affectionate to her child and passionate to her love.

In the four movies reproducing Cleopatra in different images, the queen is expressed to be weak or strong using makeup, hair-style, accessories, etc. or using makeup, hair-style and dress style that were in fashion when the movies were made.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Cleopatra's makeup and hair-style in the movies can be drawn out through analyzing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Cleopatra and the background and fashions during the time when the movies were produced and, by removing such influences, we may be able to analyze makeup and hair-style closer to the real image of Cleopatra in history.